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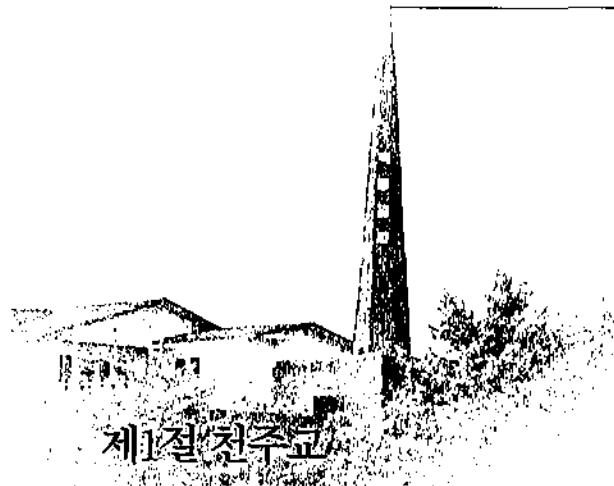
# 6



제6편 | 삼의 내용

제이파워 마니아

## 제1장 종교



용인의 천주교는 조선말엽 천주교가 이 땅에서 흡박반을 때 피난처로 19세기 초부터 유입되기 시작하였다.

19세기 도요지가 용천리에 3곳이 발견 된 것으로 보아 이때부터 천주교가 전래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나 전하는 바가 없다.

다만 1894년에 백봉교회를 개척한 이원서의 아내가 우 마리아(禹麻利牙), 그의 아들 이아금(李冶金: 야곱)인 것으로 보아 백암에도 천주교인이 생존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1982년 간행한 용인 천주교회사에 의하면(1980년10월 현재) 백암면의 공소는 백암공소 (회장 서성인(베드루)) 66세대, 용암공소 (회장 박근석(야고버)) 42세대, 장평공소 (회장 이극봉(요셉)) 43세대, 용천 공소 (회장 이규한(요한)) 14세대가 기록되었을 뿐이다.

2006년 현재 천주교 관련 기관으로 백암성당, 수녀들이 노후에 기도하며 생활하는 성모수녀 복자원과 지체부자유자들을 돌보는 성가원, 미혼모를 돌보는 생명의 집, 노인들을 보살펴주는 요셉의 집이 있다.

### 백암성당



〈사진6-1〉 백암성당

백암면 장평, 옥산, 석천, 등지는 수원 교구 축산본당 구역이며 그 외 지역은 양지본당에 속한다. 백암은 과거에 축산교구 장평공소가 설립되어 미사를 보고 그 외 지역은 양지본당에 가서 미사를 보다가 2003년 백암본당이 설립되어 서종민(바오로) 신부가 부임하여 비닐하우스 건물에서 미사를 집전하여 비로소 백암의 천주교가 활성화되기 시작하였다.

이로 인해 장평공소 구역은 백암 본당 구역이 되었고 공소의 기능은 소멸되었다.

현재 백암본당의 교우는 900여명에 이르며 이들은 교육  
분과, 전례분과, 성소분과, 선교분과로 이루어지는 사목회  
(회장 박상신 토마스)와 꾸리아(박교선 베드로), 장례 미사  
와 연도를 돋는 년영회(박기석요셉), 초등부, 주일학교를 조  
직하여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현재 성당을 신축중이다.

#### ● 건물

대지면적 : 3,353,000평방미터(1014.28평)

건축면적 : 663.73평방미터(200.7평)



〈사진6-2〉 백암성당 신축중

건물규모 : 지하1층, 지상2층콘크리트 건물.

## 제2절 기독교

1880년대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소개된 이후 용인지역에도 기독교가 전파되면서 1890년경 백암에 백봉교회가 설립되었다.

그 후 백봉교회를 중심으로 교세가 늘어나면서 1920년 장평교회(현 올리교회)가 설립되어 복음전달과 함께 문맹퇴치를 위한 노력을 기울였으며 1931년 백암교회가 설립되었다. 그리고 광복 후 백암교회 목사 양석봉과 장로 신태원은 혼란한 시기에 시국강연을 통하여 사회질서를 유지시키었으며 ‘외사고등 공민학교’를 설립하여 오늘날 백암중고등 학교까지 그 맥을 이어가게 했다.

이와 같이 백암의 기독교는 복음전달 뿐만 아니라 백암지역 교육, 문화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교세의 확장으로 2006년 현재 13곳의 교회와 많은 성도들이 복음전달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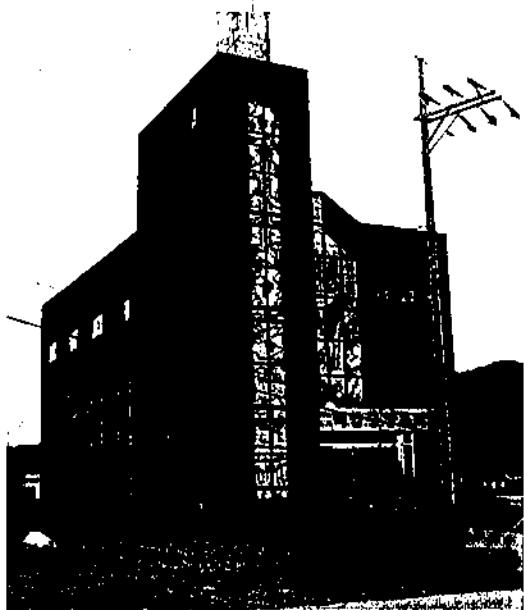
2004년 3월 기독교연합회 주최로 열린 백암성결교회 복음대회에 1200여 성도들 중 800여명이 모여 시국에 대한 기도, 백암발전을 위한 기도를 올리고 회장 안재관 목사(용천교회)는 삶의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참고 : 백암소식지 2호, 성결교회 인물사〉

### 백암중앙교회

- 위치 : 백암리 174-3
- 소속 : 대한예수교 장로회

본 교회는 1980년 백암리 홍약국 2층40평에서 현 목



〈사진6-3〉 백암중앙교회

사인 조복희 목사가 설립예배를 보면서 시작되었다.

조 목사는 청소년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1981년 교회에 선교원을 설립하고 시설을 마련하여 주산, 부기, 타지를 가르치며 유치원을 운영하였다. 선교원의 교육비를 무료로 운영하여 학생 수가 150여명에 이르렀으며 이들이 성도가 되어 오늘의 교회로 성장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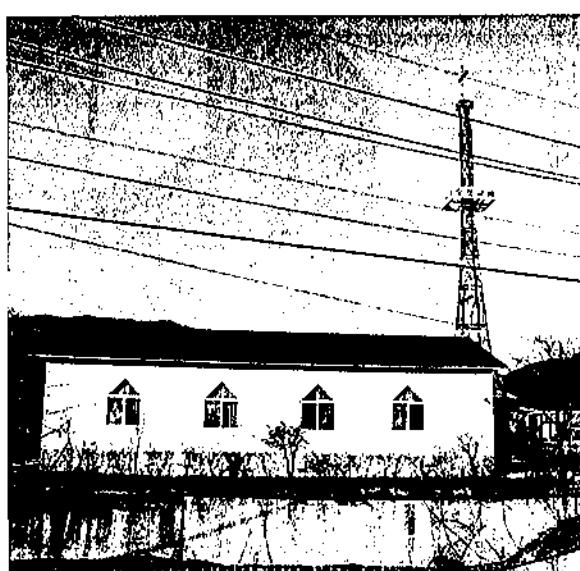
그 후 1983년 선교원에서 가르치던 주산부기를 그만두고 백암리 407-9번지의 토지를 매입, 건물을 신축하고 오직 복음전달에 열중하다 2004년 백암리 174-3번지에 교회를 신축하고 이전 하였다.

현재 성도는 200여명에 이르며 이 성도들은 당회 장로 4명, 재직회 집사 43명, 권사 13명과 부속기관으로 주일학교, 주일학교 교사회, 학생회, 청년회, 남전도회, 3개의 여전도회, 성가대가 형성되어 신앙생활에 열중하고 있다. 또한 복지관을 마련하여 ‘백암 경로대학’을 운영하기도 하였으며 현재 복지관에 외국인 노동자가 생활 할 수 있게 하고 있다.

그 밖에도 각 교회가 연합하여 13곳의 외국 선교 활동을 돋고 있다.

〈참고 : 조복희 목사 증언〉

### 수정교회



〈사진6-4〉 수정교회

위치 : 가창리 313-1

소속 : 대한예수교 장로회

수정교회는 1987년 9월 24일 가창리 방앗간 옆에 중고 조립식 건물을 짓고 가창교회로 유통호 전도사가 창립예배를 드리면서 시작된 교회이다.

그 후 방앗간교회는 사정에 의하여 인근 과수원 창고에서 복음을 전하다 1991년 여의도 순복음교회 소속 남해옥권사가 전(田) 230평을 교회 신축부지로 기증하여 1997년 현 위치에 성전(교회 30평, 사택25평)을 건축하고 2003년 수정교

회로 교회이름을 개명하고 오늘에 이르고 있다.

성도 수는 19여명에 이르고 있으며 어린이 성경학교 등을 운영하고 있고, 특히 국내 선교활동으로 행복한 교회, 세교동 교회, 세광정신요양원, 자오나눔 등에 선교활동 지원하고 있으며 인근 수정초교에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다. 또 해외선교로 태국(장병조, 김종구), 방글라데시(정미경), 멕시코(안요섭)등을 지원하고 있다.

교회의 표어는 이웃에게 기쁨을 주는 교회, 풍성한 삶을 주는 교회이며, 역대 교역자는 초대 윤용호 전도사, 2대 이동명전도사, 3대 박성민 목사, 4대 (현) 나안균 목사이다.

〈참고 : 나안균목사 증언, 주보〉

### 율리교회

위치 : 용천리 21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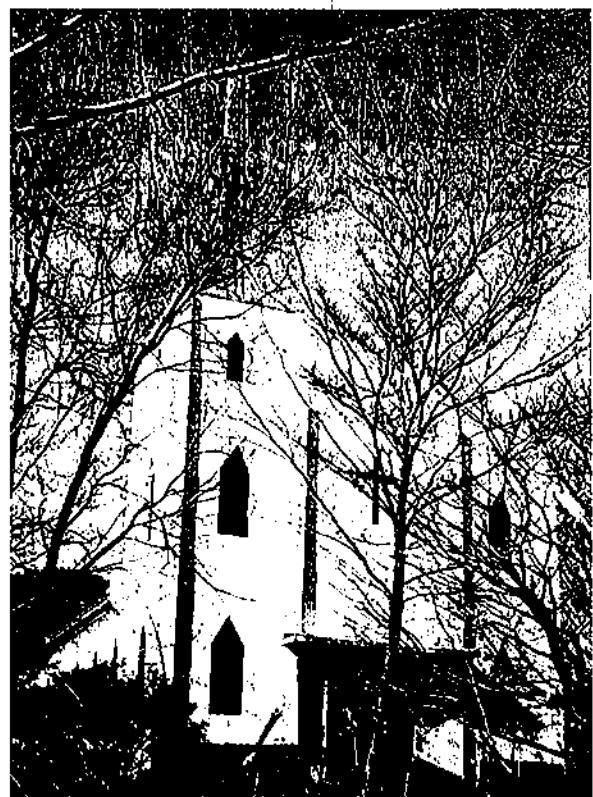
소속 : 대한예수교 장로회

1910년 10월 설립된 교회로 백암지역에 두 번째로 설립된 교회이며 용인시 교회역사에 한 장을 장식한 교회이다.

1900년대 초 장평리에서 봉양학교를 설립 운영하던 심원용(沈源用)이 일제의 병탄으로 가정이 파산되고 교육도 못하게 되자 술로 세월을 보낼 즈음에 우연히 예수를 알게 되었다. 그 후 면식이 있는 박승명이라는 사람이 안성에서 전도한다는 말을 듣고 박승명을 초빙하여 예배보기 시작한 것이 율리 교회의 시원이 되었다.

율리 교회의 연혁을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12년 : 피드 선교사가 이곳을 순례하며 예배를 인도함.



〈사진6-5〉 율리교회

경성 노회에서 원세성 전도사를 파송 받아 첫 담임 교역자가 됨.

1920년 : 백봉교회, 장평교회가 합하여 당회를 조직. 제1회 당회가 백봉교회에서 열려 노회장 도서원(선교사), 사찰원 유홍렬, 오건영 제씨가 문답하고 장로 안수식 거행.

1923년 : 도서원 선교사가 이임 후 고언 선교사가 당회장이 되어 교무를 처리함.

성도수가 280여명에 이르렀음.

1937년 : 장평교회 건물을 방매하고 율리로 이전 증축함.

1938년 : 교회 명을 대한예수교 장로회 율리 교회로 노회가 허락 등록함.

1956년 : 전도사 김국일이 야간에 진학 못하는 청소년들에게 영어와 한문을 가르침.

1967년 : 이관우 전도사가 부임하여 교회 내에 유치원을 무료로 개원 교육함.  
서울 경신중학교와 자매 결연을 맺고 학교로부터 현금으로 논 1600여평을 받아 교회재정에 보탬이 됨.

1971년 : 교회를 신축하고(전평 40평 종탑까지 3층) 낙성예배를 드림. 이 때 영부인 육영수여사가 축하 메시지를 보내고 용인 군수가 시계를 선물하였으며 경찰서장과 각 기관장들이 참석함.

1992년 : 현 오정원 목사 부임. 교육관 건축.

### ● 현황

90여명의 성도들이 모여 기도하고 있으며 구역은 네 구역으로 나누어져 있다.  
재직으로 은퇴 장로 두 명, 현직 장로 두 분이며 시무권사 5명, 은퇴권사 5분  
이 있다.

표어는 신령한 교회이다.

### ● 배출 목회자

서울 묘동교회 원로 목사 : 박한용

경신고등학교 전 교목 : 박한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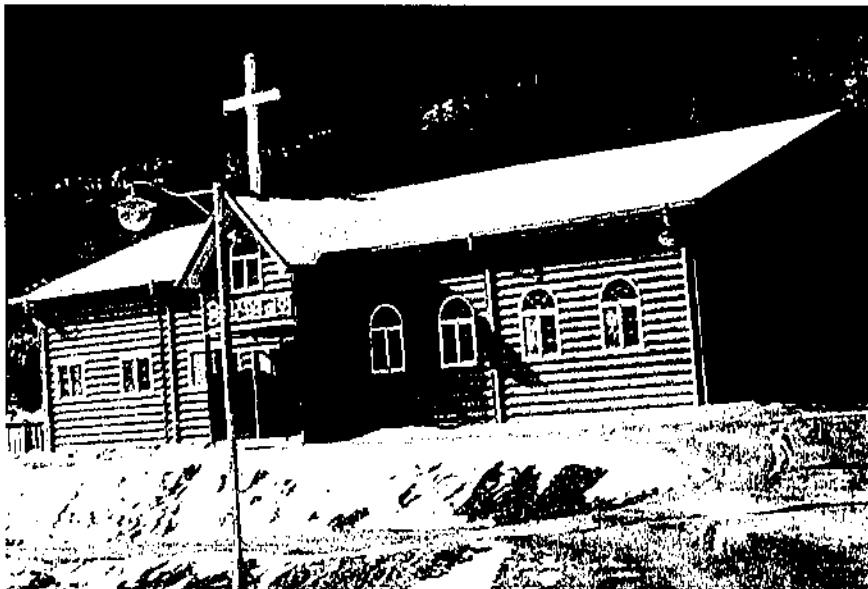
서울 연동교회 원로 목사 : 전필순.

선교사 : 안재관

〈참고 : 오정임목사 증언, 율리교회 연혁집, 박한영 목사 회고록〉

## 용인전원교회

- 위치 : 균삼리 348번지
- 소속 : 대한예수교 장로회



<사진6-6> 용인전원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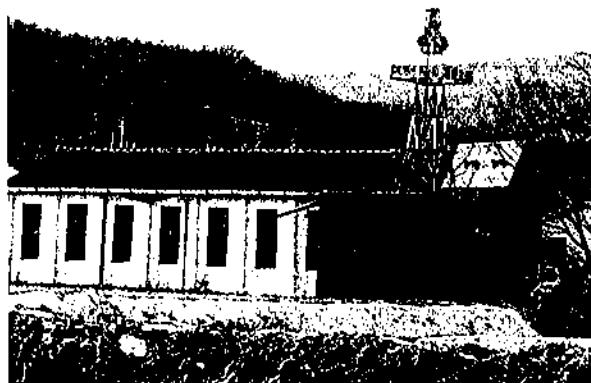
2002년 10월 1일 창립된 교회로써 도심을 피해 전원에서 말씀과 기도로 훈련하고 지역사회를 섬기는 교회가 되고자 노력하고 있다.

주간에는 수양관으로 수도권 지역교회 및 일반 사회단체의 각종 교육과 수련회 장소로 이용되고 있다. 30~50명 정도의 숙식이 가능하며, 교회 창립 후 수련회로 다녀간 인원은 약 150여명에 이른다. 주일 및 수요일에는 일반 교회와 동일하게 예배가 진행된다.

교회의 표어는 사랑의 띠로 하나되는 교회로서 사도행전적인 교회, 수도원적 전원교회, 민족 및 세계선교 교회를 꿈꾸며 기도하고 있다.

현재 성도 수 재직20여명 교회부지 1,000여평, 건물 60여평, 농장 500여평이 있으며 김수대 목사가 시무중이다.

## 황덕교회



〈사진6-7〉 황덕교회

▶ 위치 : 석천리 황석마을 516-1번지  
▶ 소속 : 대한예수교 장로회

1979년 신철종 전도사가 황석마을에서 개척한 교회로 현재 성도는 25명 정도 되고 있으며 성도 대부분이 농사를 짓고 있는 노인들이다. 이 교회는 20여년 전에 황제울로 이전 신축되었으며, 성전은 300여평 부지위에 20여평의 성전으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 박광래 목사님이 시무하고 있으며 현재 신도들의 나이가 많은 관계로 생활능력을 상실

할 때 이들을 위하여 노인복지장을 준비하여 기도하고 있다고 한다.

교회가 어렵기는 하나 인근 세광 정신요양원에서 봉사를 하고 있다.

## 백봉교회

▶ 위치 : 백암면 백봉리 210-7  
▶ 소속 : 기독교 장로회



〈사진6-8〉 백봉교회

1885년 언더우드 선교사를 중심으로 전국에 개신교가 전파되기 시작한 구한말, 우리나라는 종교적 의미에서도 공백상태에 다름없었다. 탄압정책으로 불교는 산중으로 들어갔고, 지배종교가 없는 상황에서 기독교는 빠르게 민중 속에 파고들었다. 어수선한 정국으로 인해 서울 중심에서는 전도가 어렵다고 판단한 선교사들은 서울 부근 농촌지역을 선교구역으로 정하였다. 용인 백봉교회는 그러한 배경으로 탄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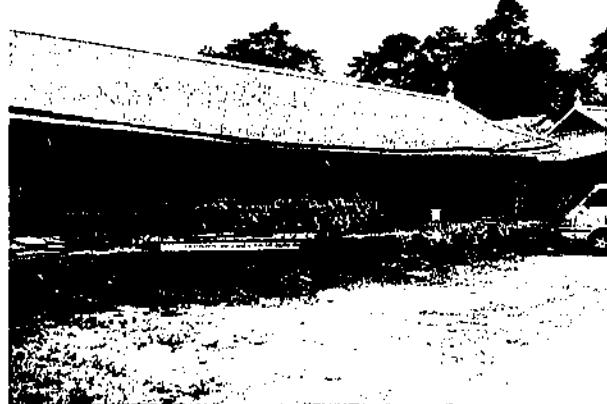
처음에는 동내 사람 서상직(徐相稷), 이원서(李元瑞) 등이 복음을 듣고 이웃 사람들에게 전도하더니 선교사 민노아(閔老雅)가 순행하여 교회를 설립하고 선교사 피득(彼得)이 계속하여 교회를 돌보고 진흥시켰다. 교회는 점차 성장하였고, 예배당을 신축하였으며 이원서, 최병권 등 교인들이 계속하여 교회를 지키며 발전시키기에 힘썼다.

민노아 선교사의 소속 교파는 밝혀진 바 없으나, 감리교에서 수원에 교구를 정했고, 서울 감리회 소속인 상동교회를 중심으로 장지리, 아리실, 곤은골 등으로 선교를 펼쳤던 사실에 비추어 볼 때, 그가 감리교에 소속된 선교사라고 생각된다. 선교사 피득은 미국의 성서공회에서 한국에 파송된 선교사인데 그는 서울에 본부를 두고 국내 각처를 순회하였다. 그는 경기남부와 충청도 일대에서 선교사 밀러와 함께 북장로회 소속으로 활동했던 인물이다.

본격적으로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전파되기 시작한 지 불과 10여년 만에 외곽지역에 불과했던 백암 백봉에서 용인 최초의 교회가 설립되었다. 백봉교회의 설립이 더욱 의미 있는 것은 바로 선교사가 세운 교회가 아니라는 점이다. 본토인들의 전도에 의해 주민들 스스로 세워진 교회인 것이다.

일제의 지배가 본격화된 이후 농촌의 조그만 촌락에 위치한 백봉 교회의 한계는 드러나기 시작했다. 백봉교회 연혁 중 1925년도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 해에만 고연 선교사, 왕관 전도부인, 하마련 선교사 등 무려 세 명이 시무를 거쳐 갔다. 110여 년 동안 30여명이 넘는다. 교회터전은 네 번이나 옮겼다.

한때 원삼면 복음중학교 교장을 역임한 후 40여 년간 양지에 머물며 용암농원을 경영했던 고 이근태 선생. 그는 자서전에서 백봉교회와 관련한 회고담을



〈사진6-9〉 초기 백봉교회

이렇게 전하고 있다.

“하루는 양지교회 당회장인 최근무 목사님이 찾아오셨다. 경기도 용인 백암면 백봉리에 백봉교회가 있는데, 거기 있던 전도사 부부와 아기, 세 식구가 월급 7만원으로 도저히 생활 할 수가 없어 다른 교회로 떠났다는 것이다. 목사님은 이 장로밖에는 그 교회를 맡아줄 사람이 없다며 백봉으로 가 줄 것을 부탁하였다. 나는 승낙하였다.

첫 예배 시간에 모두 18명이 모였는데, 그게 1979년 9월이었고, 1982년 9월에 사임했으니, 꼭 3년 동안 머문 셈이다. 비록 목회 경험은 없지만, 평양 신학교 1학년을 마쳤고, 10살 때 교회에 다니면서 학생시절에는 전도대 활동도 하고 개인전도도 했으므로, 영락교회, 새문안교회, 금란교회 등 서울의 큰 교회 주보를 구독하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설교 준비를 하였다. 내가 사임할 때 즈음에는 교인 수가 55명에 이르렀다.”

백봉교회는 이처럼 이근태 장로 같은 분들의 사랑으로 큰 교회이다. 현재 교회성전은 100주년 기념사업으로 지었다.

신도 수 80여명으로 그리 크지 않은 교회지만 용인 기독교 전파의 산 역사로서의 우뚝 솟아 있다.

(우상표)

### 백암순복음교회

위치 : 박곡리 584 번지

소속 :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

서울에서 회사를 경영하며 교회장로와 서울 강동지역 협의 회장 등을 역임하며 각종봉사활동을 하던 꽈종남 장로는 충청도 아산, 서울 면목동에 자비로 교회를 설립하여 복음을 전파하게 하였다.

또한 1982년 박곡리에 부지 400평을 구입하고, 이듬해 성전을 건축하였으며, 총회에 부탁하여 전도사를 통해 시무하게 하였다.

곽 장로는 1990년까지 사업을 하다가 본인도 하나님 일을 하여야겠다는 마음을 갖게된 후 신학을 공부하기 시작하여 목사 안수를 받고 목회의 길을 가기위해 기도 생활을 시작한다. 그 때 백암교회가 재정적 어려움으로 교회운영이 어렵게 되자 2004년 비어지다 시피 한 백암교회에 곽 목사가 직접 둥지를 틀고 시무하기 시작하였다고 한다.

현재 성도 수는 25명이며 역대 교역자는 초대 최성훈 전도사, 2대 이우영 목사, 3대 박광웅, 4대 현재 곽남종(郭南鍾) 목사이다.

〈참고 : 1982년 겸찰신문, 곽 목사 증언〉

### 옥산교회

- 위치 : 옥산리 산 123-1번지
- 소속 : 대한예수교 장로회



〈사진6-10〉 백암순복음교회

1945년 광복과 함께 백암성결교회 집사인 김충례와 그의 아들 이명렬 전도사가 자신의 집 사랑에서 예배 보기 시작한 것이 옥산교회의 시원이다.

처음 사랑(舍廊)에서 시작하여 산중턱에 초라하나 초가성전을 짖고 목회를 하여왔으나 농촌의 경제적 어려움과 유교 풍습에 의해 교세확장에 어려움이 있어 1945년부터 1982년 까지 목회자가 17번 바뀌었다.

그 후 1982년 여러 교회에서 목회를 하던 황인배 목사가 부임 후 열심히 교회를 일으키고 전도하여 1988년 황 목사의 제자, 전(前)교회의 도움, 옥산교회성도들의 노력으로 당시 성전 아래쪽으로 성전 145평을 마련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현재 성도는 140여명에 이르며 조직은 황철환 목



〈사진6-11〉 옥산성결교회

사, 황인배 원로목사, 은퇴 장로 4명, 시무장로 3명, 안수집사 2명, 그리고 장년부, 주일학교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 ● 역대 목회자명단

- 초대 : 이명렬전도사(옥산리 출신 개척한 분)
- 17대 : 곽효선목사
- 18대 : 황인배 목사
- 19대 : (현)왕인철 목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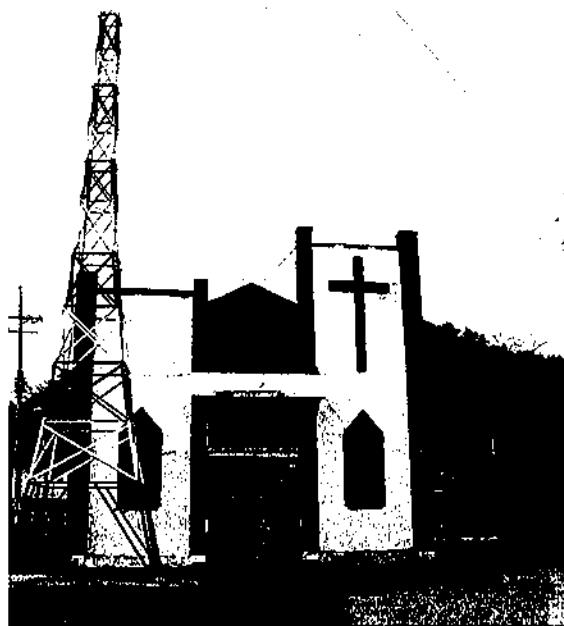
### ● 배출교역자

- 이명렬(옥산교회에서 시작하여 서울에서 목사로 은퇴)  
 이규진 목사(안양 성결신학대학에서 교수역임)  
 박한규 목사(현재 서울에서 목회)  
 황철환 목사(현 옥산교회에서 시무)

〈참고 : 원로목사와의 대담〉

### 근삼교회

위치 : 근삼리 276-1  
 소속 : 대한예수교 장로회



1983년 이 고장에 복음을 전달하기 위하여 주지한 목사가 개척한 교회이다.

현재 성도 수는 50여명이며 집사 13명, 권사 3명, 장년부, 유년부 등으로 조직되어 복음을 전달하고 있다.

현재 담임 목사는 장기성 목사이다.

〈참고 : 장기성목사와 대담〉

〈사진6-12〉 근삼리 근삼교회

## 용천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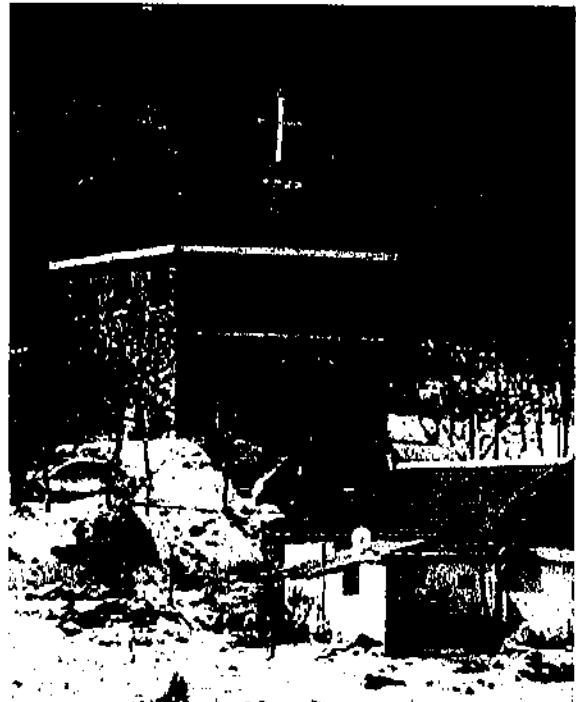
- ▷ 위치 : 용천리 616-13
- ▷ 소속 : 대한예수교 장로회

용천리에 살며 율리교회 집사인 안지형이 1981년 죽말에서 기도하기 시작한 것이 용천 교회의 기원이다.

전 경기 도지사였던 박창원 장로가 땅 500평을 회사하여 부지를 마련하고 성도들이 힘을 합하여 성전을 건축하였다. 현재 성전 규모는 2층 건물 50평과 사택으로 이루어져 있다. 성도 수는 20명이나 장로는 없고 모두 믿음이 높아 집사로 교회 일을 하고 있다.

그러나 1998년 당시 주보를 보면 담임목사 박사택, 서무장로 안지형, 전도사 안재관으로 기록 된 것을 보면 현재보다 성도 수가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현재 담임목사는 이승배이다.



〈사진6-13〉 용천교회

## 백암제일교회

- ▷ 위치 : 근삼리 5-2
- ▷ 소속 : 합동

1990년대 중반 대한예수교회 합동 측 수원노회 후원으로 교회가 설립되었으며 ‘표어는 기쁨이 넘치는 교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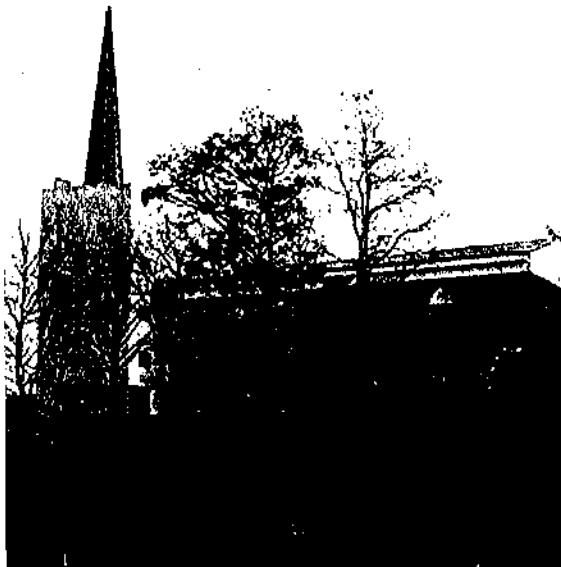
성전규모는 부지 194평에 성전 40평, 교육관 10평, 사택 25평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성도수는 청장년 30명, 학생부 3명, 주일학교 12명이다. 목회자는 김인환 목사



〈사진6-14〉 백암제일교회

가 개척하고 현재 이병학(2006년 1월부임)목사가 시무중이다.

### 백암성결교회



(사진6-15) 백암성결교회

▷ 위치 : 근창리 100-1  
▷ 소속 : 대한예수교 장로회

1930년 9월 백암면 근창리 276번지에 신태봉의 사랑에서 신태봉, 김수덕(신태봉의 처)

최부억, 신봉업, 신성균, 전도사 이용순 6명이 개척 예배를 드린 것이 백암성결교회의 시원이다.

1932년 근암리 277번지 30평을 신태원이 제공하고 신태봉이 목재를 희사, 이용순 전도사가 현금, 성도들의 노력봉사로 성전이 이룩되었다.

1934년 앞으로 더 많은 복음을 전달하기 위하여 백암의 중심지가 내려다보이는 근창리 산 4-1번지 1000여평에 성전 함석지붕 20평, 사택5평을 짓고 이전 하였다. 그 후 1938년에 이르러 교회를 사

택으로하고 목조건물 30평을 신축하였다.

1945년 광복이 된 후 신태원 장로를 중심으로 외사고등공민학교 설립, 1949년 서두성목사와 신 장로를 주축으로 대한청년단을 조직했다. 그 후 혼란한 사회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시국강연을 실시, 백암지역 복음전달은 물론 교육과 질서유지에 일익을 담당하여 오고 있다.

#### ● 현황

담임목사 김원식, 장년 350여명, 청년 239명, 학생 50여명, 어린이 80여명으로 총 530여명에 이른다. 조직으로 교역자 담임목사 김원식, 부목 진성희, 전도사 이준일, 원로장로 2인, 시무장로 4인, 안수집사 13, 시무권사 27, 명예권사 18, 서리집사 남 16, 여 46, 명예집사 14명이다.

성전의 규모는 부지 2,120평, 건평 239평, 사택2개동(담임목사 사택, 부교

역자 사택)이다.

(도표6-1)

백암성결교회를 모 교회로 하는 목회자

성명	교회명	교단	지역	성명	교회명	교단	지역
이달진	새생명	대신	제주도	김원식	백암	기성	백암 근창
신세균		기성	미국 샌프란시스코	김수대	용인전원	기성	백암 근삼
김양식	매탄제일	대신	수원	김수구	서라벌종	교목	서울
김영식	꽃뫼	예장	안성 고삼	윤용호	정평	기성	거제도
손광영	제일	기침	진천	정용희			장호원
김수양	새능력	대신	충북 음성	윤태철	산외중앙	기성	전북 정읍
황계연	두란노		청원	안택균	열린문	기침	수원
이명종		기침	서울	이경숙(여)		전도사(예성)	

### ① 역대목회자 명단

- 초대 : 이병희 (근삼리에서 근창리로 교회이전).
- 죄 혼, 양석봉, 서두성(한국전쟁당시 순교), 조명석, 이종기, 오이홍, 민봉기, 민준기, 송세홍, 정세택, 박종태(현재 교회건축), 유흥목, 김영호, 장석규, 김원식(2002현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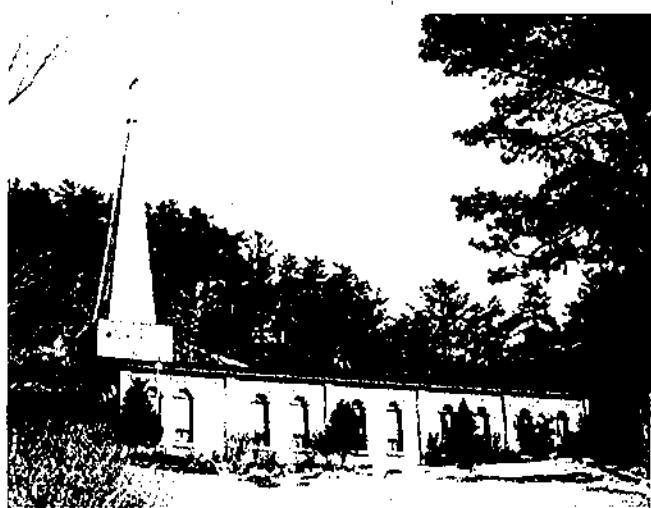
### 백암전원교회

· 위치 : 백봉리 산 61-1

· 소속 : 순장

성도들이 혼잡한 도심을 피해 한적한 시골 교회에서 휴식을 취하며 기도할 수 있는 교회로 1998년 서울 순장로회교단에서 개척한 교회이다.

교회 성도 수는 40여명으로 조규환 목사, 장로 1인, 권사 4인과 함께 기도하며 복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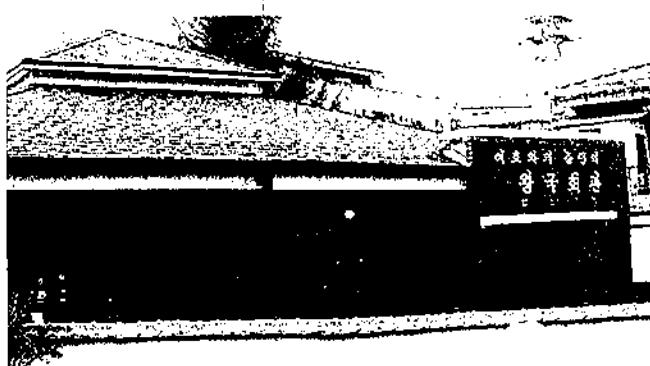


&lt;사진6-16&gt; 백암전원교회

을 전달하고 있다. 성전의 규모는 종교부지 400여평에 성전 80여평, 사택, 수양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교회의 표어는 “믿음과 봉사와 전도가 함께하는 교회”이며 역대 교역자는 김일수 목사, 양호봉 전도사, 신명수 전도사, 현재 조규한 목사이다.

### 왕국회관



〈사진6-17〉 왕국회관

위치 : 군장리 20-9

기독교의 한 종파로 19세기 말 미국에서 시작된 종교이다. 우리나라에 1912년 유입되어 현재 1599여 곳의 회중에 10만 여명의 중인(신도, 성도)들이 있다.

백암의 회중은 1985년에 설립되어 장로 7명, 봉사의 종 2명 전도인 37명이 있다.

백암의 중인들도 타곳의 중인들과 마찬가지로 형편이 허락하는 대로 한 달 100여 시간씩 매월 발간되는 「파수대」, 「깨어라」라는 인쇄물을 가지고 가가호호 방문하여 전교하고 있다.

## 제3절 유교



백암지역의 유림들은 양지향교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유림들은 보통 매년 음력 2월 8월 상정일(上丁日)에 석전제(釋奠祭)를 올리나 양지향교에서는 매년 8월 27일 공자탄신일에 석전제를 올린다. 그러나 2007년부터는 양력 9월 27일에 실시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초하루 보름에 대성전에 유림들이 모여 분향한다.

효사상을 선양 보급하기 위하여 유림회 주최로 각 학교의 추천을 받아 석전제날 시상을 하며 1년에 1개 면의 각 학교에 4시간씩 충효교육을 실시며 양지향교 관할이 이동, 양지, 원삼, 백암면 이므로 4년마다 한 번씩 교육하게 된다.

백암면에서는 유교사상으로 비롯된 경로사상, 효사상과 유림들의 활동으로 경로잔치(매년 10월 4일 백암 산악회, 매년 2월 전통 갈비대표 : 유종일, 어버이날 기념경로잔치), 연꽃마을에서 매년 가정의 달에 지역노인위안잔치를 베풀고 있으며 면민의 날 행사시(2004년 : 효자 최병준, 효부 이선옥)에 효자 효부상을 수여한 바 있다.

### ● 백암의 유교 유적

- 효자정문 : 고안리 박인영 순조(1819), 박곡리 안희중 정조(1794)  
    옥산리 이규현 영조(1743), 옥산리 이원복, 영조(1736)
- 열녀 정문 : 옥산리, 연안이씨 : 순조(임진)

### ● 백암 유림명단(모두 장의임)

옥산리 박용준(朴容峻), 옥산리 안창호(安昌濩), 옥산리 이종원(李鍾元)  
옥산리 박한혁(朴漢赫), 근삼리 신한철(申漢澈), 석천리 구주회(具周會)  
석천리 오하영(吳夏泳), 옥산리 최승교(崔承敎), 근삼리 이관섭(李寬燮)  
여성장의로 장평리 서정옥(徐貞玉), 근창리 이미례(李美禮),  
백암리 구온순(具溫順)

〈참고 : 양지향교전교, 백암소식지(4호 2004년 6, 3)〉

### ● 효행상을 받은 사람들

**김갑회(근삼리)** : 9살 되던 해에 아버지가 중풍으로 쓰러지자 다니던 장평간이 학교를 그만두고 아버지 병구환과 가사를 돌보다가 1954년 홀어머니만 남겨두고 군 입대를 하여야 함으로 급하게 인근 목순군 씨와 결혼 후 군 입대하였다. 1961년 모친이 별세하자 정신자체를 잃고 있는 장모를 43년간 모셔 인근에 모범이 되어 안동김씨 용인 종친회에서 효자상을 수여 하였다.

**최병준(근삼리)** : 가정형편이 넉넉하지 못하여 중학교를 졸업하고 가사 일을 돌보며 두동생과 큰딸을 대학까지 졸업 시킨 성실한 사람이다. 1994년 상처하고 홀아버지를 지극정성으로 모시며 가정을 꾸려나가는 모범된 사람이므로 주민들의 추천으로 효자상을 수여 받았다. 12년 전 아내 생존 시에도 효자상을 탄 바 있다.

**이선옥(백봉리)** : 1994년 시아버지가 결막염으로 실명위기에 처하고 시어머니가 고혈압으로 눕게 되자 분가살림을 청산하고 시가에 들어와 지극정성으로 시부모를 봉양하다 1997년 IMF로 인해 실직하자 시부모를 모시면서 직장에 나아가 살림을 꾸리는 일인 3역을 담당하며 시부모 봉양에 극진함으로 면에서 효부상을 수여 하였다.(2004년)

## 제4절 불교

### 1. 백암의 불교

백암면 내에 전통있고 널리 알려진 사찰은 없는 편이다. 다만 장평리의 조비산 아래 조천사가 조선후기에 창건되었다고 전하여질 뿐이며 또 백암지역에 가람의 규모가 장대하거나 다수의 스님들이 수행하는 절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신라시대 축조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박곡사지와 응주암지 등 여러 곳의 사지가 전 하여서 백암 불교가 성행하였음을 말하여 주고 있을 뿐이다.

현재의 각 사찰 신도 수는 1500백여 호에 이르나 모두 백암 거주자들이 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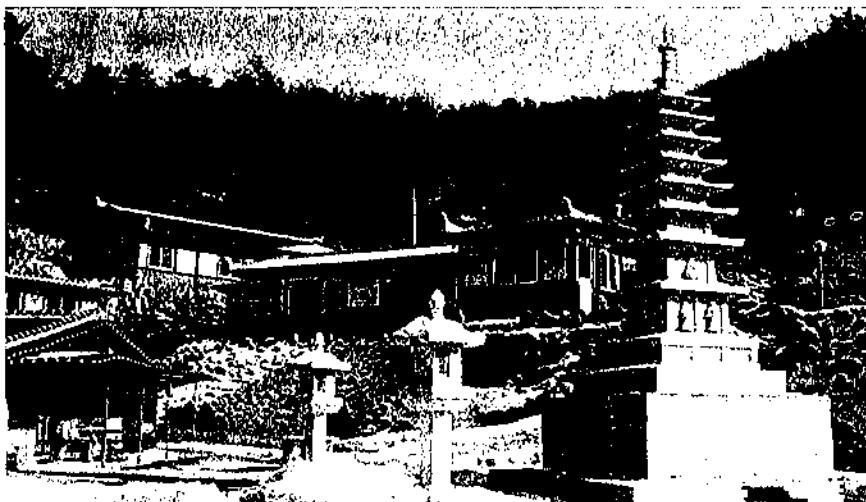
니므로 신도 수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300여 호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 된다.

그리고 백암지역 스님들이 포교를 위한 조직이나 신도들 간의 조직 또한 없으며 다만 용인시 전체 스님들의 모임인 사암연합회, 신도들의 모임인 불교 신도회가 있어 4월 초파일 행사 때 각 사찰의 스님과 신도들은 매년 용인 중심지에서 연등 행사를 하고 있다.

## 2. 백암의 사찰

### 천신 약사암(天神 藥師庵)

> 위치 : 박곡 2리 산3번지 대덕산



〈사진6-18〉 천신약사암

대덕산 줄기에 송대사, 이대사라는 스님들이 이곳 자그마한 암자에서 정진 및 포교를 하다 입적한 후 폐사 되었을 때 서울에서 정진하는 묘진(妙眞)스님 꿈에 도사가 나타나 오백나한 골에 불사를 하여 중생들을 도우라는 말을 듣고 1985년 9월 이곳을 찾고 불사를 하여 창건 된 사찰이다.

현재 서울, 수원, 용인 등각지의 신도 200여호로 구성되었으며 초파일 법회 이외에 특별히 법회는 갖지 않고 신도들이 필요로 할 때 절에 와 기도하고 스님과 상담하고 있다한다.

특히 공기 맑고 대덕사 중턱에 약수가 있어 중병환자들이 이곳에 와 기도하고 휴양을 하여 병 고친이가 있어 환자들의 휴양지로 알려져 있으며 스님은 선도들에게 언제나 주어진 대로 살려고 노력하며 욕심내지 말고 남을 비방하지 말기를 부탁 한다한다.

본 절은 무속적인 경향을 띠고 있으며 주지 묘진 스님은 괴로운 사람 누구나 이 곳에 와 부담 없이 휴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 한다.

종교 부지는 2,000여평에 이른다.

### 대온사(大恩寺)

▶ 위치 : 대덕산 줄기 백봉리 110번지



〈사진6-19〉 대온사

대온사 노스님인 성진(成進)스님이 충남 예산에서 정진하던 중에 어느 보살(전 제일약품 회장의 모친)이 원삼면 가좌리에 암자를 구입하여 주어 원삼으로와 정진 하던 때에 1967년 산사태로 절이 없어짐에 백봉리사지 북쪽 경계부분에 흙벽돌로 된 방 한 칸과 부엌이 있는 집을 구입, 이주하여 불사를 일으키기 시작하여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한다

현재 노스님과 노스님 아들인 주지가 절을 운영하며 정진 및 포교에 열중하

고 있다. 사찰 배치를 보면 5000여평의 종교부지에 일주문, 요사채 2동, 법당, 천불당, 3기의 부도, 납골당1기, 연못, 야외에 많은 부처를 모시고 있으며 그리고 불교문화를 알리기 위한 불교 문화관이 있다. 특히 이곳은 고려 말, 조선 초의 것으로 추정되는 백봉리사지(柏峰理寺址) 경계 부분에 있어 백봉사지의 유물이 있다.

현재 신도는 전국 각지에 분포되어 있으며 그 숫자는 500여호에 이른다.

〈참고 : 대은사 창건주 성진(成進 :신미생)스님〉

### 조천사(朝天寺)

▶ 위치 : 장평리 24번지



〈사진6-20〉 장평리 조천사

사찰문화 연구원에서 발간한 『용주사(龍珠寺)』에 의하면 1732년 심씨 성을 가진 처사가 지병이 있어 매일 조비산에 약수를 펴다 먹던 어느 날 꿈에 백의를 한 관음보살이 나타나 “부처님을 모시고 휴양하라”하여 초가로 절을 짓고 휴양한 결과 병을 고쳤다 한다. 이 초가를 조천사의 기원으로 본다.

그 후 1770년 박처사라는 사람이 초가를 헐고 관음전을 지어 선암사(禪岩寺)라 하였다.

- 1796년 조천사로 개명
- 1974년 주지 용상(龍象)이 요사신축
- 1979년 주지 박승문(朴承文)이 부임하여 퇴락한 관음전을 헐고 대웅전 신축하고 사찰 진입로 확장
- 1980년 전기시설.
- 1981년 산신각 신축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대웅전(24평) 정면 5칸, 측면 3칸의 팔작지붕으로 내부에 석가여래,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상과 신중탱, 후불탱, 아미타 범종 등이 봉안되어 있다.

삼성각(15평)은 대웅전 뒤편에 있다.

신도 수는 150여 호에 이르나 초하루 보름법회에 7~8명 정도만 법회를 갖는다 한다.

현재 주지 범정(梵政:비구니)과 2명의 비구니가 정진 및 포교에 열중하고 있다.

〈참고 : 조천사의 선원스님(1957~), 사찰문화 연구원간 용주시(龍珠寺)〉

### 용천사(湧泉寺)

위치 : 용천리 상리 구봉산 중턱



〈사진6-21〉 용천리 용천사

1935년 진경(眞鏡)스님이 선주사(仙住寺)를 창건 하였으며 한국전쟁 때 소실 되었다. 소실되기 전 이곳에서 치사 안진호(安震湖)가 불경, 찬불가, 우리나라의 사찰이름을 기록 한 범문의법(法門儀範)을 출간하여 포교하던 곳이라 하나 기록은 전해지지 않는다.

소실된 절을 어느 스님이 초가를 짓고 약수암이라 하며 절을 유지하다가 원삼면의 경수사(鏡山寺) 주지 보경(寶鏡)과 그의 제자 학선(鶴仙)이 도량을 일신하여 선경암(仙境庵)이라 하고 정진과 포교를 하였다 한다.

1990년 폭우로 인한 산사태로 법당이 멸실되어 사찰의 명맥만 유지하다가 1993년 주지 학선이 법당자리에 산신각을 짓고 요사채 앞에 2층(아래층 50여 평, 콘크리트) 건물을 짓고 2층에 법당(25평, 목조)을 마련함과 동시에 절 이름을 용천사라 개명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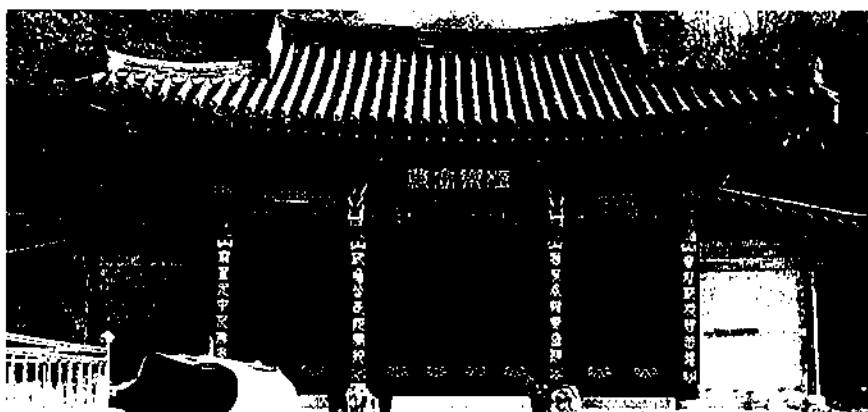
1000여평의 부지위에 산신각, 요사채 2동(안동은 법당 아래층), 법당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주지 보성(甫晟: 학선의 상좌)과 공양주보살이 사찰을 운영하며 신도는 280여호에 이르고 신도들은 신도회와 보살들을 중심한 보현회가 있다.

이들은 초하루 보름으로 법회를 갖고 있으며 특별한 때에 노인정에 노인들을 위로하기 위하여 떡을 보시하고 있다.

〈참고 : 주지 보성의 증언과 사찰문화 연구원발간 용주사(龍珠寺)〉

### 정토사(淨土寺)

▶ 위치 : 근창리 산 60-8번지 구봉산



〈사진6-22〉 정토사극락보전

1994년 법주사 권속인 동안(東安)스님이 이곳에 텐트를 치고 정진하기 시작한 것이 정토사의 기원이다.

1996년 극락보전(극락보전 14평), 삼성각(3평), 과 요사채(가건물)을 지었다 한다.

일만 여평의 부지위에 300여평의 종교 부지를 형성하고 주지 동안이 정진과 포교에 힘쓰고 있다.

특기할 것은 극락전 축대 좌우에 돌화을 놓아 고풍스런 감을 주게 하고 있으며 사찰경내에 일반 사찰에서 보기드문 사자로 된 3층 석탑이 있다 이탑의 우주 네면에 대나무, 연꽃, 매화, 난이가 조각되어 있다.

이 탑은 정토사 사찰 터의 지세가 험하므로 이를 누르기 위하여 타 곳에서 모셔 왔다하여 이 탑의 조성연대는 알 수 없다

신도는 50여호에 불과하나 초하루 보름 법회를 같고 있다.

참석 못하는 신도를 위하여 매월 2회 A4용지 양면에 부처님 말씀을 기록하고 절의소식을 전하는 회보를 만들어 편지형식으로 신도들에게 보내주고 있다한다.

〈참고 : 주지 동안(東安)〉

### 광제사(廣濟寺)

▶ 위치 : 균삼리 331-5 (깊은 골)



〈사진6-23〉 광제사

산수골절로 불리워지던 절이 있었다한다.

1994년 땅 주인으로부터 현주지 경우(耕牛)스님이 땅 주인으로부터 터를 제공받고 1960년대 지어진 스레트 건물을 헐고 현재의 사찰로 중창하였다.

중창 시에 낸대를 알 수 없는 불구 및 기와파편이 출토되는 것으로 보아 수백여 년 전부터 절이 있었음을 추측 할 수 있다.

가람의 배치는 500여평 위에 법당(정면 3칸, 30평,) 기와지붕이며 요사채는 1층 30평 2층 30평이며 아래층은 요사채로 사용하고 있고 위층은 불교유물 전시관으로 꾸밀 예정이라 한다.

법당의 단청은 일반 사찰의 단청과 달리 빛깔이 은은하며 요사는 고야지붕으로 일반 전원주택과 비슷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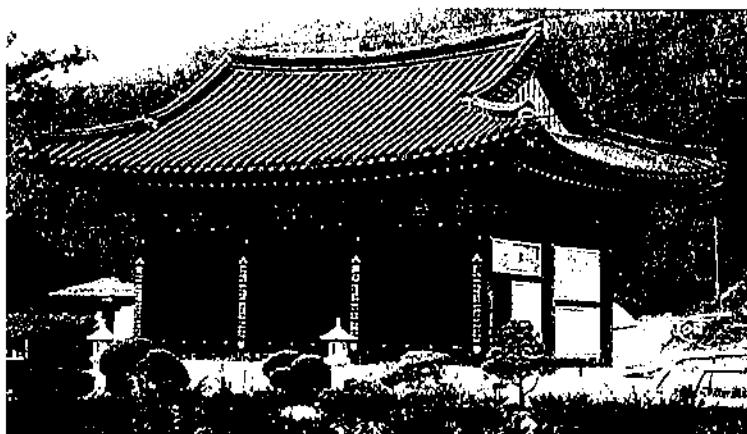
그리고 법당의 주존불 옆에 협시불 없이 석가모니 삼존불을 모시고 있다 특히 한구의 부처님(인도에서 모셔옴)은 개급하지 않았다. 그리고 주존 불에 인도 보드가야 대탑에 공양 하였던 가사를 모셔와 그 가사를 입혀 드렸다.

현재 두 분의 스님(비구니)이 200여호의 신도들과 함께 포교와 정진을 하고 있다.

〈참고 : 주지 경우〉

### 용화사(龍華寺)

▶ 위치 : 가장리 528-11(신창) 수정산 동쪽



〈사진6-24〉 용화사



〈사진6-25〉 용화사 큰법당

현 사찰위치로부터 4~5백미터 윗 쪽에 고려시대 것으로 추정되는 미륵이 있는 것으로 보아 고려 시대부터 있었던 절로 추정되나 기록과 구전이 없어 정확한 연혁은 알 수 없다. 미륵이 있는 곳에 초가로 된 암자가 있었는데 현재 588-11번지로 이전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현재의 사찰규모는 대웅전 한식물개와 건물 20평과 스레트로 된 요사채 100여평에 이른다.

본 사찰은 대웅전을 큰 법당이라 한글로 된 현판이며 주련 또한 한글로 써놓아 친근감을 주고 있다. 신도는 30~40여호에 이르며 비구니스님 두 분이 정진 및 포교를 하고 있다.

### 정원사

▶ 위치 : 가창리 내창



<사진6-26> 가창리 내창 정원사

1960년대 초에 어느 신도가 수정산 정상부에 불사를 하여 정원사를 창건하여 오대사라는 분이 절을 운영하다 입적한 후 조대사라는 스님이 운영하던 중에 1990년대 초 산사태로 인하여 절이 멸실되면서 스님 및 공양주 보살이 사망하였다 한다.

폐사된 절의 부처가 땅에 묻혀 있는 것을 인가로 모셔와 부처님을 모시게 됨에 정원사가 현 위치로 이전되었다 한다.

현재 비구니스님 한 분이 부처님을 모시고 정진하고 있다.

〈참고 : 최수옥(崔壽玉 1930~), 가창리 생장〉

### 백암사(白岩寺)

▶ 위치 : 백암리 산 30번지 쓰레산 동쪽



〈사진6-27〉 백암사

주민들의 말에 의하면 150여년 전부터 있었던 절이며 대처승이 있었던 절이라 한다. 법당 앞에 자그마한 비석에 의하면 1982년 불이나 전소된 것을 체순금 보살이 시주하여 현재의 가람이 되었다한다.

가람배치는 요사채, 산신각, 법당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특히 두 평 남짓한 산신각에서 매년 이동리 주민들이 산신제를 올린다 한다.

현재 신도는 주로 백암 주민 30여 호로 이루어져 있으며 주지 지원(智圓)이 초하루 보름으로 법회를 갖고 있으나 활동은 미비하다한다.

〈참고 : 주지 지원(智圓)〉

### 약수암(藥水庵)



〈사진6-28〉 약수암

위치 : 백암리 산 20번지

이곳에 물이 좋아 절 이름을 약수암(藥水庵)이라 하였다.

이절은 1960년대 초부터 자그마한 절이 있었는데 1980년대 초 보살 이수옥이 터 300평을 관공스님(비구니)에게 회사하여 법당(20평)을 신축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2005년 협소한 요사를 헐고 40여평의 요사를 건축하였다.

현재 신도는 100여호에 이르며 신도들은 약수회를 조직하여 주지 자원 스님과 함께 포교와 정진에 노력하고 있다.

### 기타사찰

사명	사격	스님수	신도수	주소
덕총사				근삼리 500번지
석수암	태고종	1	40여명	근삼리 117번지
연수사	태고종	1	30여명	백암리 산 6번지
용운사	법화종	1	500여명	근청리 산 55번지
천광도사		보살2인		박곡리 원대 706번지
수도암	조계종	1	50여명	석천리 614번지
덕림사	본원종	1	5	근삼리 500번지
국수사	태고종	1	30여명	석천리 559번지

〈이종구〉

## 제2장 교육



### 제1절 백암교육의 발자취

백암지역에 청동기시대 유물이 발견되는 것으로 보아 이때부터 사람이 이 곳을 터전으로 하여 생활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며 이들은 어떤 형태로든 교육 하였을 것이라 추정되나 그 내용은 알 수가 없다. 다만 조선 시대 용인, 죽산 지역에서 과거합격자가 배출된 것으로 보아 서당교육과 인근 서원, 향교에서의 교육이 이루어져 이곳에서 학동들이 교육받았음이 확실하나 그 내용 또한 전하는 기록이 없어 알 수 없는 형편이다.

이러한 관계로 본 장에서는 20세기에 이곳에서 이루어졌던 서당교육, 근대 교육을 구슬과 기록을 통하여 알아보고 최근의 교육기관을 공교육기관과 사회교육기관으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 제2절 시대별 학교 교육

#### 1. 전근대 교육기관

조선시대 교육기관은 초등교육기관에 해당하는 서당, 중등교육기관에 해당하는 향교와 서원, 그리고 대학교육기관에 해당하는 성균관이 있다.

백암 지역에 있던 전근대 교육기관은 서당이 있었을 뿐이다. 서당에서 기초적인 교육을 마치고 상급교육기관에 진학할 학동들은 인근의 축산향교, 양지향교, 이동면에 있는 한천서원, 모현의 충렬서원 등지에 가서 공부하였으리라 추측 된다.

### 서당 (書堂)



〈사진6-29〉 박곡리 협동마을 백암서당

서당, 글방이라 불리워지고 있으며 기초적인 한자와 유풍을 전작시키기 위한 초급 교육 기관을 말한다. 교육 장소는 훈장 댁 사랑방이나 인근 유지의 사랑방이었으며 교육내용은 천자문, 통감, 습자 등이었다.

조직은 교사인 훈장, 반장격인 접장, 학생으로 이루어졌으며 마을단위로 소규모형태의 교육기관이었다.

교육비납부는 보리 나올 때 보리쌀 한말, 벼 나올 때 벼 한말이 주를 이루었으나 이것이 문서화 된 것이 아니라 관습에 의해 이루어졌었음으로 덜 내거나 못 내더라도 교육은 이루어졌었다. 특히 백암, 남사 원삼은 용인 타 지역보다 들이 넓은 편이므로 강미가 많은 편이다.

백암지역에서 서당에 관한 기록은 전하여지는 것이 없어 구전에 의해 기록 할 수밖에 없어 20세기 이후에 이루어진 서당교육을 구술을 통하여 일부를 기술하려고 한다.

&lt;도표6-2&gt;

20세기 이후 백암지역의 서당

상산서당	주민들이 조합을 형성 허대, 안준선이 야간으로 학생을 가르침.
근심리 인말서당	정갑현이 서당을 운영, 기초 고급반으로 나누어 지도했음.(1900년대초~1940년대 초)
옥산리 옥산서당	훈장은 조씨이며 학동은 8~9명정도. 1920년대 시기를 달리하여 3곳에서 운영 하다가 이 서당들이 옥산학원(玉山學院)의 전신이 됨.
고안리 아곡서당	훈장은 송성진(宋成纘). 학동은 7~8명이었으며 훈장은 옥산학원 한문 교사였음.
백암리 서당	이용욱이 훈장을 초빙하여 이승철을 교육.
백봉리 임남	훈장 권영식이 학동 7~8명을 교육.
근곡리 노동	이씨 성을 가진 훈장이 학동 7~8명을 교육.
근심리 강촌	훈장 최규환(崔圭煥)이 학동 20여명을 가르침.
박곡리 협동서당	훈장 오정환(吳正渙)이 본가 사랑에서 학동들을 가르쳤다하여 언제부터 서당을 운영하기 시작하였는지는 알 수 없음. 1954년에 학동이 13명에 이르렀다함. 1955년 폐함.
백봉리 백동서당	1930년대부터 1940년대 말까지 백동부락에 사는 훈장 백남주(白南珠)의 사랑에서 학동 7~8명 정도를 가르쳤다 함. 월시금은 무료였으며 책거리 할 때 떡과 술을 내는 정도였음.
백봉리 샘말 서당	훈장 강신욱(姜信旭)이 학동7~8명을 교육하였다함. 강미는 보리때 보리쌀 한말, 가을에 쌀한말 이었다 함.
백봉 이진봉 서당	최옹호(崔龍鎬)훈장이 한약방을 운영하면서 학동들을 가르쳤는데 사서(四書)까지 가르쳤음.
석천리 황석서당(광복전 후)	황석 부락에서 야간으로 구태서씨가 학동 7~8명을 본가 사랑에서 천자, 동문선습 등을 가르쳤다 함. 강미는 걸보리 걸벼 1말 정도.
근곡리 서당	근곡리 노동부락에서 1930년대 학동20여명을 천자, 동문선습 등을 가르쳤다 함. 당시 훈장은 이곳 유지 100이었으며 강미는 형편에 따라 내었는데 가을에 생활이 낮은 사람은 쌀1말, 그보다 낮은 사람은 벼1말 그마저도 못내는 학동에게는 무료로 교육 하였다 함.

## 2. 근대교육기관

근대교육이란 한문 위주의 서당교육을 벗어나 한글, 수학, 지리 등 다양한 내용을 교육하는 교육 형태를 말한다.

19세기 말 서양 문물이 급격히 유입되면서 이를 수용하기 위해 새로운 교육 제도가 필요해 점에 따라 지식인들은 새로운 교육기관 설립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게 되었다. 이에 따라 용인 지역에서 현 기흥구 서농동에 서천소학교, 언남동에 명륜학교, 원삼에 삼악학교, 백암에 훈도학교 등이 설립되어 근대교육을 실시하게 되었다.

광복 이전 근대 교육형태는 00학원, 00야학, 00강습소, 00학교 등으로 불리워졌으며 현재는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교육과정을 가르치는 교육기관을 학교, 학교교육에 보충교육을 담당 하는 곳을 학원이라 하고 있다.

광복 이전 백암의 학교는 백암보통학교, 장평보통학교가 있었으며 이 학교들의 설립은 지역유지들의 현금과 주민들의 노력봉사로 설립되었으나 교육을 직접 담당하는 곳은 일본 총독부에 의해 시행되었다. 그러나 학원, 야학 등은 주민들이 설립하고 직접 운영하여 교육은 자유로웠으나 보통학교 교장, 각 기관들에 의하여 감시를 받고 심하면 교사를 퇴출시키기도 하였다.

월사금은 보통학교가 비싼 편이었으며 그다음 학원(강습소), 야학으로 소규모 교육기관은 월사금이 거의 없는 상태였다.

일제시기 기본교육 혜택을 받는 아동들을 분석해 보면 생활형편이 낳은 아동들은 주로 보통학교에 입학하였으며 보통학교와 거리가 멀거나 생활형편이 어려운 아동들은 강습소(학원)에서 교육을 받았다. 그리고 생활형편이 극빈한 아동들은 가사 일을 돋기 위하여 무료라 하더라도 학원마저 다니지 못하였다 한다.

특히 1930년대 용인지역 11개면(당시 고삼면도 용인군 이었으나 제외)에 조사된 강습소가 20곳인데 비해 백암지역은 4곳으로 타 지역보다 많은 편이며 이는 이 지역주민들의 교육열이 높았음을 의미하며 또 들이 넓어 생활 형편이 더 나았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백암에서는 1900년대 초 봉양학교, 1910년대 중반 훈도학교, 1910년대 말 백암보통학교 20년대 말 옥산리에 옥산학원, 1930년대 석천리에 근영학원 등이 설립되어 백암지역의 근대교육을 담당하기 시작하였다.

### 봉양학교

장평리 부락에 세워졌던 학교로 백암최초의 근대교육기관이며 용인에서도 몇몇 학교와 함께 근대교육 효시를 이루는 학교이다.

1907년 심원용(沈源用)과 박용선(朴庸善)이 장평리에 심명택(沈鳴澤)의 사랑과 옆 터를 구입하여 8칸의 교사(校舍)를 짓고 학도 8~90여명을 모집 교육하였다.

그 후 교사(教師)의 월급 지급이 어려워 직접 낙향하고 교원을 요청하여 교

육하던 중 1910년 일제의 병탄과 재정상의 어려움으로 폐교되었다.

당시 교사로는 박용의 목사, 오전영 목사, 박용선(朴庸善) 교관(구한말 벼슬 이름)이었다.

배출 인물로는 용인에서 국회의원 출마하고 서울종로에서 이비인후과를 경영하며 이승만대통령 주치의였던 정기섭(鄭起燮) 박사, 광복 후 경기도 장학관, 서울 각 초교에서 교장을 역임했던 심원구(沈元求) 전 교장, 전 종경총회장 전필순(全弼淳) 목사, 박한석(朴漢哲) 목사, 구용회(具龍會) 장로 등으로 용인 및 우리나라 발전과 기독교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참고자료 : 룰리 교회사. 박한용 회고록 283쪽〉

### 훈도학교(薰陶學校)

황성신문 1910년 1월 16일자 보도에 의하면 “원이면(현 원삼면 두창리) 분촌에 사는 목영세가 훈도학교에 금 5원을 의연하였는데 이에 대해 그곳 사람들이 교육에 열심임을 감탄하였다”고 전한다.

훈도학교는 원삼면 두창리의 유지인 목영세가 설립한 학교로 강습소라 불렸으나 정식 명칭은 훈도학교라 하였다하여 당시는 두창리의 생활권이 백암이었으므로 두창리 분이 백암에 학교를 세운 것이라 한다. 이 학교가 현 백암초교 전신이다.

또 원삼초교 6년제 1회 졸업생인 김영문(金榮文 1922~)의 말에 의하면 한문 공부를 어느 정도 한 백암 사는 박필선, 미륵들 사는 김봉호가 이곳에서 6개월 정도 공부한 후 초등학교 교사가 되었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고 한다.

위의 기록과 구술로 미루어보아 1910년 당시 백암에 근대교육기관이 있었음을 알 수 있으며 이곳에서 공부하고 실력을 갖춘 이는 곧바로 학교 교사가 될 수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참고 : 목성균(陸星均 1924~2005) 전 원삼면장이며 목영세의 손자〉

### 백암노동야학

1927년 백암청년회에서 한글을 모르는 이들을 교육하였다. 당시의 생도는 30명이었으나 1929년 생도는 50명이었으며 교원은 5명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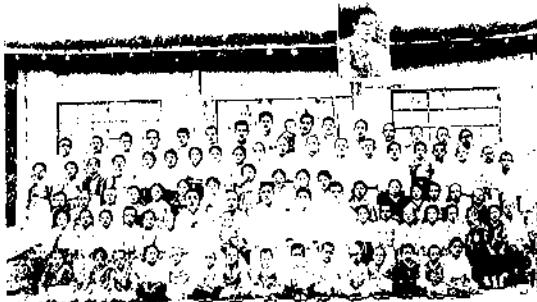
소장은 한영교(韓英敎)였다.

〈참고 : 동아일보 1929년 1월 11일〉

### 근영학원(槿英學院)



〈사진6-30〉 근영학원 운동회



〈사진6-31〉 근영학원 일동

1) 수신(修身): 교과서로 1900년대 만들어진 교과서는 가정 사회 민족 인류에 보탬이 되게 하려는 교과서로 민족 의식 고취를 위한 책이었으나 일제는 원 교과서 내용을 폐기하고 우리민족을 일본에 동화 시키기 위하여 새로 꾸민 교과서.

현 백암면 석천리 덕은 마을에서 교육하던 초등교육기관이다.

이곳에 살던 정명근(鄭明根)이 하와이 사탕 수수밭에서 일하고 돌아와 신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자기 집 사랑을 이용하여 학생을 모으고 포천에 살고 있는 교사(教師) 유기현을 초빙하여 교육하기 시작하였다.

세월이 흘러 학생이 증가하자 1931년 보통학교과정을 가르치는 근영학원을 설립하였다. 설립자의 노력, 유지들의 희사와 주민들의 노력 봉사로 교사(校舍)를 지었는데 특히 하와이에 있을 때 친구 남정현(南廷憲)의 기부금이 많은 도움이 되었다한다.

제1회 졸업식은 1935년 3월 25일 거행되었고 졸업생은 단 4명 뿐이었으며 (2회 : 9명, 3회 : 12명, 7회 : 18명) 졸업사진에 일본 연호를 쓰지 않고 서기를

쓴 것으로 보아 정명근의 민족사상을 엿볼 수 있었다.

학교는 대지 약 700평(구언회로부터 무상임대)에 건물2동(교무실10평, 교실 3곳은 20평 한곳은 30평)으로 구성 되었는데, 초가목조(마을의 미루나무로 지었음)인 까닭에 가을이면 학부형들이 이영을 가지고와 지붕을 이었다고 한다.

교과 내용은 보통학교와 같았으며 월요일 첫째시간은 언제나 수신 과목<sup>1)</sup>을 가르쳤는데 이 시간을 이용하여 우리나라 역사를 교과서가 없는 관계로 이야

기 형식으로 가르쳤다 한다. 또한 당시 국어시간에는 일본어를 가르쳐야 하나 공립학교인 보통학교에서 가르치지 못하는 우리 글을 가르쳐 민족의식 고취에 노력하였다 한다.

월사금은 가정형편에 따라 받았다가 많이 내는 학생은 1년에 벼 한 가마니를 내었으며 무료인 학생들이 대다수였었다 한다.

교육 과정은 4년제 보통학교와 동일하여 4년 졸업 후 백암보통학교에 5학년으로 입학하여서 6년제를 졸업하였고 전입학당시 균영학원은 불온적인 교육을 받았다하여 5학년 편입이 타교보다 아주 까다로웠다고 한다. 본 학원은 4년제 학교이기 때문에 군학무과에서 허락을 받아야 하였으며 이때 당국은 균영의 균(權)자는 국화인 무궁화를 의미한다 하여 교명을 석천학원이라 부르게 하였으나 형식상 석천학원이라 하고 실제로는 그대로 균영학원이라 불렸다 한다. 특히 초대교사 유기현은 불온사상을 가르친다하여 당국에 의해 그 만들 수밖에 없는 불행을 겪기도 하였다.

한 편, 졸업자 정찬섭이 기억하는 동요가 민족교육의 일환으로 다음과 같이 전해지고 있다.

선죽교 피다리, 개성군 선죽교야,  
정포은 죽은지 너부나니 몇 해이냐,  
아~ 충성을 다하자, 충성을 다하다.

광복 후 1946년 많은 학생이 장평초등학교로 입학하여 학생이  
줄자 균영학원은 1946년 해체되고 학생들은 수준에 맞게 장평, 백  
암학교로 전학하였다 한다.

당시교사로 구언희, 황평주, 임도연 외 20여명이 근무하였다  
한다. 역대교장은 초대 정명근(鄭明根), 2대 구원희(具元會)였  
으며 초대교장 정명근은 친미(親美) 성향이 있다하여 반강제적  
으로 물러났다고 한다.

당시 교가 가사는 다음과 같다.



〈사진6-32〉 균영학원 교사



〈사진6-33〉 균영학원 학생 일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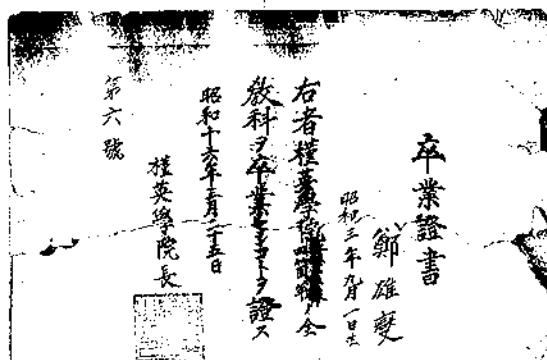


쉼없는 정미천 동에 흐르고,  
아름답다 그 경치 근영학원은  
동무야 동무야 어서모여라

변치 않는 조비산 앞에 솟았네.  
무궁화 한복판에 솟아있네  
배우자 배우세 배워야 산다.

〈참고 :정찬섭(鄭讚燮1925~) 설립자의 아들로 유치원, 학원졸업, 구주회(具周會 1933~) 당시학생, 오하영(吳夏泳1937~) 당시 학생〉

### 근영학원 일화



〈사진6-34〉 근영학원 졸업장

정명근씨가 하와이에서 일할 때 친구 남정현이 학원교사(校舍) 설립시 800불이라는 거액을 기부하고 때때로 학생들에게 학용품을 보내 주었다한다. 학용품을 기부 받을 때 정명근 부인에게 내 평생 빚을 지지 않고 살았는데 하와이에 있을 때 이 친구에게 500불이나 꾸어 아직 갚지도 못하고 있다. 이렇게 도움을 받으니 어찌 할 바를 모르겠다고 말하는 소리를 아들 정찬섭이 들었다 한다.

정명근이 돌아가고 난 후 우연히 남정현의 한국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3형제는 의론하여 돈 500원을 마련하여 남정현을 찾아가 자초지종을 말하고 500원을 내어 놓았다한다.

이를 본 남정현은 눈물을 흘리며 고맙다하고 “나는 미국에서 연금으로 매월 4만원 씩 받고 있어 생활에 불편함이 없으니 가지고 돌아가 자식들을 잘 키우게나. 그리고 나는 자식이 없으니 이 사진이나 간직하여 주게”하며 10여장의 사진을 주었다고 한다.

그 사진은 정명근이 학교 교사를 짓고 학생들과 기념 촬영 한 것과, 졸업사진, 운동회사진 등으로 타국에서 고생하며 도와주는 친구에게 감사의 마음으로 보내준 것을 고이 간직하였던 것이다.

이 사진들을 현재 정명근의 큰 아들이 간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1, 2, 3 회 졸업자 수를 알 수 있었다.

위의 내용은 두 사람의 강한 민족의식과 교육열을 알 수 있으며 비록 자신의 빚은 아니지만 부모의 빚이라도 갚으려는 후손의 정신은 각박한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 큰 교훈이라 할 수 있다.

### 옥산학원(玉山學院)

옥산마을에서 죽산, 백암보통학교의 신교육을 받으려 다니기에는 거리가 멀었다. 따라서 이곳 유지인 안면호(安冕鎬), 안명선(安明善), 박한구(朴韓久)는 밤에 서당이 운영되던 사랑에서 옥산학원을 설립 신교육을 하기 시작하였다.

당시의 학감은 안종윤, 송성진 제씨로서 이때가 1929년 2월 25일이었다. 동년 8월 학생이 늘고 사랑방에서는 학생을 수용 할 수 없게 되자 동리 청년유지 한상규(韓相槐), 박영근(朴英根), 박홍근(朴洪根) 등이 주선하여 1930년 초 가 4칸의 교사를 완성 학교의 면모를 갖추고 교육하여 학생이 많을 때는 150여명에 이르렀다고 한다.

인근 장평리에 장평간이 학교가 설립되면서 학생의 수가 줄기도 하였으나 1944년까지 운영되었다 한다.

현재는 학교 터를 밭으로 사용하여 그 흔적은 찾을 수 없다.

역대교장은 안종윤(安鍾允), 박영근(朴英根), 박제원, 박한기씨 등이 역임했다.

〈참고 : 동아일보 1929년 3월 10일, 박사문(朴思文 1919~) 당시 교사〉

### 백암야학

1920년대 말 백암청년회장인 임석준씨가 백암리 병원자리 구 건물에서 야학을 열어 학생들을 가르쳤다.

### 예배당학교

1930년대 초 백암리 성결교회에서 청년들이 학생을 모아 초등교육과정을 가르쳤다.

### 백봉교회 야학

백봉리 교회에서 겨울에 밤을 이용하여 학동들에게 한글을 가르쳤다.

### 덕은고등공민학교(德隱高等公民學校)

근영학원이 1946년 폐원되고 교사가 비어있자 원곡에서 교편생활을 하던 유진영(용천리 태생)선생이 1947년에 이 고장에 중등교육기관인 고등공민학교를 설립 교육하였다.

1950년대 초 백암초등학교 교실을 빌려 얼마간 교육하다 폐교되었다.

### 외사고등공민학교(外四高等公民學校)



〈사진6-35〉 외사 고등공민학교 졸업사진

백암교회(현 백암성결교회)목사 양석봉과 이 고장 유지이며 교회장로인 신태원이 백암에 중등교육기관이 필요함에 교회 사택을 임시교실로 개조하여 1947년 외사고등공민학교를 설립하였다. 초창기 학생은 20~30여명이었으며 교장은 전문규, 교사(教師)는 이지영, 이강윤(근창리), 구춘희, 김순영 선생이었으며 부족한 교사(教師)는 군수, 과출소장등이 무보수로 강의하였다 한다.

외사 고공출신으로 백암농협 전조합장 윤규돈, 박곡리의 안상진, 전 용인군 군의회 의원 최완영, 피난시절 이곳에서 공부하고 김대중 대통령 시절 환경부

차관을 역임한 심영섭씨 등이 있다.

시간이 흘러 학생이 많아지자 백암 유지인 박씨로부터 부지를 기증받아 학교 교사(현 백암중학교 터)를 세워 교육하다 미션학교로 정식 인가를 받아 운영하려 하였으나 인적 물적 자원의 부족으로 미션학교 인가가 무산되자 신장로는 다시 문교부에 정식공립학교 인가를 신청하여 1955년 백암 공립중학교를 설립하게 되었다.

외사고등공민 학교는 제 6회 졸업생을 배출하고 그 교육기능을 백암 중고등학교로 교명 변경 교육하게 되었다.

〈참고문헌 : 성결교회인물전 제7집 263쪽, 용인교육발전사. 윤규돈, 안상진의 구술〉

### 3. 현대의 교육기관

#### 1) 유치원

유치원은 만 4세부터 초등학교 취학이전의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기관으로 2003년 현재 용인시 유치원 수는 사립31, 공립 29곳으로 60곳이 있다.

우리나라 최초의 유치원은 1909년 함경도의 나남 유치원(羅南幼稚園)이 효시라고 한다. 용인에서의 유치원 효시는 정확히 몇 년도에 설립 되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1930년대 석천리 덕은 부락의 근영학원에서 학원과 함께 운영한 근영유치원이 현재 알려진 바에 의하면 그 효시가 되며 현재 백암의 유치원은 공립 유치원 2곳, 사립유치원 2곳이 있다.

#### 근영유치원(槿英幼稚園)

1930년대 석천리 덕은 부락에 근영학원이 있었는데 이곳 학생들을 따라온 동생들을 한 교실에 모아 교육하기 시작하여 유치원이 형성되었다 한다.

교육 내용은 옛날이야기, 가정에서 생활예절, 샐하기, 노래하기 등 이었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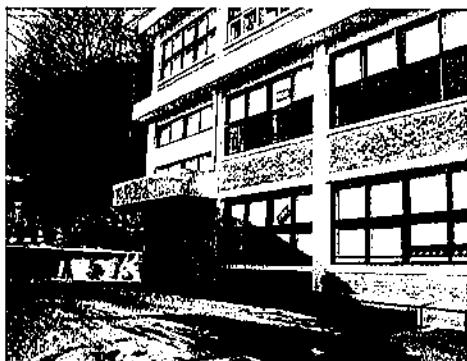
이곳에서 얼마간 적응하면 꼭1년이 아니더라도 1학년에 편입하여 교육하였다고 하며 당시 유치원 전담교사는 없었고 학원의 여러 선생님들이 각각 와

서 교육하였다고 한다. 원생들은 학생의 동생들이었으므로 그 분포는 석천, 장평, 용천리 거주자들이었으며, 삼죽면 올곡리 학생들도 있었다고 한다. 학생 수가 많을 때는 30여명에 이르렀다고 하며 월사금은 거의 무료였다고 한다.

그 후 1946년 균영학원이 폐원됨에 따라 폐원 되었다.

본 유치원은 1970년대 용인읍내 강남유치원 포곡에 성채유치원보다 40여년 전에 설립된 유치원으로 용인시 유치원의 효시라 할 수 있다.

〈참고 : 오하영(吳夏泳 1937~): 유치원에서 공부하고 균영학원 생이 되 분〉



〈사진6-36〉 백암초교 병설 유치원

### 백암초교 병설 유치원

근창리 105번지 백암초등학교 내에 있으며 원장은 학교장이 겸임하고 있다. 현재 교사는 1인(여)이며 1학급 정원은 35명인데 현재 43명이 재학하고 있다.

본 원은 1981년 3월 10일 개원하였다.

### 장평초 병설유치원

장평초등학교 내에 있으며 원장은 학교장이 겸임하고 있다. 1981년 3월 5일 개원하였고 현재 이농현상, 저출산으로 인하여 현원 14명에 불과하다.

### 백봉초 병설유치원

백봉초교에 있으며 원장은 교장이 겸임하고 있다. 1985년 9월 2일 개교하였고 정원은 35명이나 현원은 18명에 불과하다.

## 2) 초등학교

1894년 과거제도 폐지와 서양의 근대 문물 유입으로 신교육이 필요함에 전국 각지에 신교육 제도인 학교 교육이 확산됨에 따라 용인시에 맨 처음 양지초등학교가 설립되고 신갈초등학교, 용인초등학교 다음으로 용인시에서 네 번

제로 1919년 백암초등학교가 설립되었다.

양지, 신갈(구성에서 출발)은 과거에 군소재지, 그리고 용인은 1914년 용인군 소재지로서 학교가 설립되었으며 면 소재지로서는 백암초등학교가 가장 먼저 설립되었다. 이는 당시 백암면이 타 면에 비하여 면세(面勢)가 강하였고, 주민들의 교육열이 강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는 타 지역에 비하여 한적한 농촌마을이므로 인구가 줄어 학생 수도 줄고 있는 형편이다.

현재 백암의 초등학교는 3곳의 학교와 분교장 한곳이 있으며 장평초교는 학생이 점점 줄어 분교장이 될 처지에 놓여있다.

본 장에서는 학교를 소개하는데 있어서 백암초교에서 교육실태, 장평초교에서 평가, 백봉초교에서 교육과정을 소개하여 백암의 초등교육을 알 수 있게 하고자 한다.

### 학군

- 수정분교 : 가창1~5리, 균곡1~3리, 가좌1리
- 백암초 : 백암1~5리, 박곡1~5리, 균창1~5리, 균삼1~4리, 6~7리, 백봉1리
- 백봉초 : 백봉2~8리, 고안1~3리.
- 장평초 : 균삼5리(강촌), 옥산2~4리 용천리, 장평리, 석천리

### 백암초등학교



〈사진6-37〉 백암초등학교

## 연혁

백암은 들이 넓고 영남지방에서 한양 가는 길목이라 옛부터 장시가 이루어 질 만큼 살기 좋은 곳이라 용인에서 네 번째로 백암초등학교가 설립되었다.

설립 과정을 보면 1919년 3월 24일 백암 공립보통학교 설립인가를 받고 죽산박씨 문중의 산을 회사 하여 현 위치인 근창리 105번지에 건물을 짓고 면내의 학생들을 모아 1919년 4월 29일 4년제 2학급 편성·개교하였다. 그 후 1923년 4월 1일 6년제로 개편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 교육의 실태

### • 지역사회 실태

전형적인 농촌지역으로 면사무소, 우체국, 농협, 과출소등의 관공서가 있으나 문화시설의 부족으로 용인 중심 지역에 의존한다.

지역별 학생 분포는 근창리(148명, 30%), 백암리(110명, 29%), 근삼리(57명,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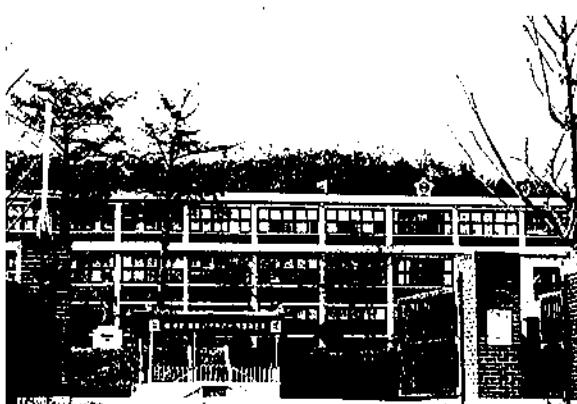
박곡리(47, 11%) 기타(23명, 6%)로 이루어 졌으며 등하교는 대중교통수단의 부족으로 학원차량이나 학부모 차량과 자전거로 통학하는 어린이가 32%에 이른다.

농촌지역의 이농현상으로 년 간 전출입이 13%에 이른다.

### • 학생실태

취학 전 유치원, 학원에 다녔던 학생이 95%에 이른다.

학생들은 사회적 현상에 대한 자료 활용 및 해석능력과 폭넓은 이해가 필요하다. 실험과정과 결과해석 능력 및 과학적 탐구태도가 필요하다. 또한 인사는 잘하나 기본 생활습관의 교육이 필요하며 절약정신 함양이 요구된다.



〈사진6-38〉 백암초등학교 정문

### • 학부모 실태

학부모 연령 분포는 30대(58%), 40대(37%), 50대(27%)이며 맞벌이 가

정이 61%에 이른다.

직업별 분포는 회사원45%, 상업18%, 공무원9%, 농업7%, 목축업4%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 · 교사실태

교사의 성비는 남20%, 여교사 80%이르며 난영 분포는 20대 47%, 30대13%, 40대 20% 50대 13%로 구성되었고 교육경력은 5년미만 53%, 16~20년 13%, 25년 이상이 3%로 교육경력이 낮은 교사가 많은 편이다.

#### 주요교육활동

- 1950년대 : 어린이 은행 설치를 통한 균검절략교육, 1인1기교육, 실천중심의 과학사회생활교육, 백봉 분교장설치
- 1960년대 : 학생보건 체육 교육 강화로 학생 체위향상, 향토학교운영, 반공 애국정신 고취
- 1970년대 : 교재원 및 종합 관찰원을 이용한 관찰학습, 군 체육대회 여자 배구 3연승
- 1980년대 : 조류사육을 통한 노작실습교육, 다목적 교실(강당)을 이용한 운동부 육성, 병설유치원개원
- 1990년대 : 도교육청 지정 과학 시범학교운영, 도지정 예절교육 시범학교 운영  
수정초등학교를 백암분교장으로 편입
- 2000년대 : 학부모와 함께하는 전산화 독서실운영, 도교육청 지정 애향단 시범학교운영

#### 현황

학생 현황

구분	1	2	3	4	5	6	특수	계	유치원	비고
학급수	2(0.5)	2(0.5)	2(0.5)	2(0.5)	2(0.5)	2(0.5)	1(1)	12(3)	1	( )는 분교
남	30(1)	31(5)	30(1)	25(6)	26(4)	42(5)	0(1)	184(23)	10	
여	30(3)	32(1)	30(2)	26(2)	39(2)	38(1)	1(2)	196(13)	15	
계	60(4)	64(6)	60(3)	51(8)	65(6)	80(6)	1(3)	380(36)	25	

## 교직원 현황

구분	교원										일반직								총계
	교장	교감	부장	담임	교과 전담	유치원	보건	특수 교사	원어민 보조	계	일반직	기능직	과학 보조	교무 보조	영양사	조리사	사서 교사	기타	
인원	1	1	4(1)	9(2)	1	1	1	1(1)	1	19(4)	1	3(1)	1	1	1	1	1	1	29(5)

## 건물현황

구분	관리실	교실	과학실	보건실	숙직실	창고	화장실	체육관	급식실
동수		1	1			1		1	1
실수	3	20	1	1	1	1	3	1	1

## 역대교장명단

대수	성명	재임기간	대수	성명	재임기간
광복전	村治入九十	1919. 4. 1~1940. 3. 1	11	조남희	1970. 9. 1~1973. 2. 28
광복전	尾島茂平	1940. 4. 1~1945. 8. 15	12	김진희	1973. 3. 1~1975. 6. 1
1	윤정립	1945. 10. 31~1947. 9. 1	13	민훈기	1975. 6. 1~1980. 9. 1
2	박필선	1947. 9. 1~1949. 10. 10	14	구자욱	1980. 9. 1~1983. 9. 1
3	장기세	1949. 10. 10~1952. 3. 3	15	윤태권	1983. 9. 1~1985. 9. 1
4	조남희	1952. 3. 3~1957. 4. 13	16	황규룡	1985. 9. 1~1990. 3. 1
5	조수학	1957. 4. 13~1959. 5. 6	17	김문영	1990. 3. 1~1994. 2. 28
6	이지호	1959. 5. 6~1961. 5. 7	18	김기수	1994. 3. 1~1995. 2. 28
7	김만섭	1961. 5. 7~1961. 10. 7	19	정의화	1995. 3. 1~1996. 8. 31
8	최복룡	1961. 10. 30~1964. 3. 20	20	이종순	1996. 9. 1~2000. 8. 31
9	유백형	1964. 3. 20~1968. 3. 1	21	정규준	2000. 9. 1~2004. 6. 31
10	임덕재	1968. 3. 1~1970. 8. 31	22	이현자	2004. 9. 1~현재

## 횟수별 졸업생 수

년도	횟수(회)	졸업생수(명)	년도	횟수(회)	졸업생수(명)	년도	횟수	졸업생수(명)
1921	1회	10	1951	27	148	1981	57	92
1922	2	9	1952	28	126	1982	58	93
1923	3	4	1953	29	149	1983	59	100
1924	4	29	1954	30	141	1984	60	100
1925	6년제 1회	24	1955	31	122	1985	61	113
1926	2	31	1956	32	105	1986	62	96
1927	3	46	1957	33	115	1987	63	94
1928	4	44	1958	34	115	1988	64	88
1929	5	68	1959	35	120	1989	65	83
1930	6	56	1960	36	162	1990	66	88
1931	7	48	1961	37	102	1991	67	79
1932	8	56	1962	38	113	1992	68	96
1933	9	51	1963	39	94	1993	69	90
1934	10	49	1964	40	118	1994	70	93
1935	11	53	1965	41	225	1995	71	86
1936	12	47	1966	42	170	1996	72	85
1937	13	50	1967	43	155	1997	73	75
1938	14	49	1968	44	188	1998	74	80
1939	15	71	1969	45	155	1999	75	68
1940	16	69	1970	46	174	2000	76	75
1941	17	81	1971	47	69	2001	77	69
1942	18	71	1972	48	152	2002	78	94
1943	19	69	1973	49	157	2003	79	88
1944	20	81	1974	50	181	2004	80	90
1945	21	83	1975	51	154	2005	81	
1946	22	88	1976	52	126	2006	82	
1947	23	96	1977	53	145			
1948	24	105	1978	54	143			
1949	25	142	1979	55	103			
1950	26	100	1980	56	139			

### 특색사업

- 기악다루기를 통한 인성교육 함양.
- 1인 1악기 다루기를 통한 소질계발, 학급기악합주를 통한 정서순화, 전교생 기악합주를 통한 협동심 함양.
- 다양한 독서 활동을 통한 전인교육.
- 독서환경조성. 다양한 독서 활동전개, 교육과정 및 발달 단계에 맞는 독서교실 운영.

### 학교상징

- 교훈 : 맑고 밝고 슬기로운 사람
- 교화 : 개나리(희망, 활력, 온화, 꿈)
- 교목 : 은행나무(강인함, 끗끗함)

### 학교발전을 위한 지원조직

학교운영위원회, 교육과정운영위원회, 녹색어머니회, 학교도서도우미, 지역사회 어머니회, 애향 보람단 명예교사, 체육진흥회, 어머니회 등이 있다.

### 장평초등학교



<사진6-39> 장평초등학교

## 연혁

- 1934. 4. 21 : 장평간이학교 개교
- 1944. 4. 1 : 장평공립 국민학교로 승격
- 1950. 5. 9 : 제1회 졸업식 거행
- 1986. 9. 20 : 학교급식 실시
- 1998. 3. 1 : 교육부지정 인성교육 시범학교 운영(2년간)
- 2003. 2. 20 : 제 54회 졸업식 거행

## 학교 실태

장평초등학교가 있는 장평리 이웃 옥산리에 1920년대 말 옥산학원, 석천리에 근영학원이 운영 되고 있었다. 옥산, 근영학원은 한국인에 의한 교육기관으로 일제의 강력한 통제가 용의치 않은 관계로 일제는 식민화교육 실현과 민족 교육 차단의 수단으로 옥산, 근영학원 중간 지점인 장평리 장재마을에 1934년 백암보통학교 부설 장평간이학교를 설립하였다. 그 후 1944년 국민학교로 승격되었다.

광복 후에 옥산학원, 근영학원은 정규학교가 아닌 관계로 학생들이 현 장평초교로 전입학하자 두 학원은 폐쇄 되고 장평국민학교는 학생들이 늘어 교실이 부족해 2부제 수업을 실시하게 되었다. 1947년 교사(校舍) 신축을 위한 주민들이 역원회를 조직 하여 교사를 건립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석천·용천리 역원은 평율(현장평 3리)에, 장평·옥산역원들은 옥산리에 세울 것을 주장하였으므로 토론을 거듭한 결과 올애(장평 2리)가 인근의 중앙이므로 올애에 교사를 신축하였으며 현재는 장재(장평 1리)에 위치하여 있다.

특기 할 것은 1965년도 졸업생 수만 125명에 이르던 것이 2006년 현재 이 농현상과 저 출산으로 인하여 총 학생수가 58명에 불과한 형편이다. 이 추세대로 진행되면 2005년도 6학급, 2006년도 5학급(현재 복식학급운영), 2007년도에는 4학급으로 줄어 향후 백암초교 분교로 될 전망이 크다.

## 교육의 실태

- 학부모 실태

학부모 연령은 대부분 30대 초반 40대 초반이다.

학부모의 학력은 대다수 고졸이상의 학력이다.

자녀의 학업성적의 관심이 지대하고 학원 수강하는 학생이 많다. 학교 재량 활동시간에 대체로 한자, 컴퓨터, 교과 보충 순으로 지도하여 주기를 희망 한다.

#### • 학생실태

기초학력 검사결과 지적능력이 우수 하나 높은 이해도가 요구 된다. 2005 학년도 학업성취도 분석결과 본교 어린이들의 학력은 중·하에 속한다. 원거리 통학생이 95%를 차지하여 교통안전교육이 절실한 편이다.

자신의 물건에 대한 애착심이 부족한 편이며 학업에 대한 적극성이 요구되는 편이다.

#### • 교사실태

교사 경력은 낮은 편이며 유치원 교사 외 남교사로만 구성되어있다. 교사수가 적으로 인해 업무량의 과다로 교사의 전문성과 내실화 신장에 어려움이 있다.

#### • 지역사회실태

인근에 관공서와 문화 시설이 절대 부족한 편이다.

학교주변의 도로는 좁은데 교통량이 많은 편이다.

농축단지 취업으로 비교적 전입전출 인구가 많다.

### 주요교육활동 및 실적

- 1940년대 : 근영학원, 옥산학원 병합 2부제 실시(1,2학년 4학급)  
석천리 분교장 설치운영하다 교사확장이전으로 분교장폐지.
- 1950년대 : 급격한 학생 수 증가로 인한 교사증축과 문맹퇴치에 주력  
부설공립학교 개교 및 운동장 확장
- 1960년대 : 가교사 철거 및 교실 신축사업  
노후 4개 교실 철거 및 5개 교실 신축
- 1970년대 : 학생 수 증가로 안전교육에 주력  
마을공부방 운영, 사랑의 종소리 운동 실시

- 1980년대 : 교육환경 대대적 구축  
학교급식 실시, 야외 독서장 설치
- 1990년대 : 교육 질적 향상에 주력  
교육용컴퓨터 설치, 교육부지정 인성교육 자율 시범학교 지정
- 2000년대 : 특기적성교육의 활성화 및 정보통신교육에 주력  
전통예절 교실운영 및 특기적성 교육실시  
각 교실 에어컨설치 및 도·농 체험학습 실시

### 학교현황

학생 현황

학년	1	2	3	4	5	6	계	유치원
학급수	1	1	1	0	1	1	5	1
학생수	남	3	3	4	2	8	8	28
	녀	4	6	6	3	6	4	30
	계	7	9	10	5	14	12	58

(2006년 현재 4학년은 학급이 없으므로 1학년과 복식수업을 하고 있음)

교직원현황

구분	교장	교감	부장	1정	2정	보건	유치원	행정직	기능직	계
남	1	1	0	2	2	0	0	0	1	7
녀	0	0	0	0	0	0	1	1	0	2
계	1	1	0	2	2	0	1	1	1	9

시설현황

구분	교지	운동장	교 사									부 속 실				
			교실	관리실	과학실	도서실	컴퓨터실	예체실	보건실	유치원	행정실	시탁	창고	숙직실	급식실	조리실
수량	7,817	7,134	6	2	1	1	1	0.5	0.5	1	0.5	6	3	1	1	1

## 역대교장명단

대수	성명	재임기간	대수	성명	재임기간
1	이근용	1947. 10. 1~1949. 5. 19	12	구자욱	1983. 9. 1~1988. 2. 29
2	이철구	1949. 8. 31~1952. 11. 19	13	김문영	1988. 3. 1~1990. 2. 28
3	전성길	1952. 11. 20~1956. 4. 1	14	김형선	1990. 3. 1~1993. 2. 28
4	송석행	1956. 4. 2~1957. 2. 9	15	전공희	1993. 3. 1~1995. 2. 28
5	전재범	1957. 2. 9~1959. 6. 19	16	박승순	1995. 3. 1~1998. 8. 31
6	이강희	1959. 8. 19~1960. 6. 21	17	서원범	1998. 9. 1~1999. 8. 31
7	홍성수	1960. 7. 23~1963. 2. 23	18	백선우	1999. 9. 1~2000. 8. 31
8	이강희	1963. 3. 1~1964. 1. 9	19	김부길	2000. 9. 1~2002. 8. 31
9	한기현	1964. 2. 20~1970. 3. 1	20	김용환	2002. 9. 1~2003. 7. 2
10	구자욱	1970. 3. 1~1980. 8. 31	21	배성관	2003. 9. 1~
11	김현식	1980. 9. 1~1983. 8. 31			

## 횟수별 졸업생수

횟수	졸업생 수								
1회	59명	12회	45명	23회	116명	34회	43명	45회	36명
2회	37명	13회	40명	24회	126명	35회	61명	46회	17명
3회	57명	14회	73명	25회	118명	36회	63명	47회	31명
4회	57명	15회	52명	26회	89명	37회	62명	48회	26명
5회	54명	16회	125명	27회	77명	38회	62명	49회	26명
6회	71명	17회	112명	28회	105명	39회	46명	50회	15명
7회	72명	18회	86명	29회	77명	40회	48명	51회	15명
8회	97명	19회	91명	30회	69명	41회	38명	52회	21명
9회	62명	20회	89명	31회	65명	42회	38명	53회	16명
10회	78명	21회	105명	32회	67명	43회	46명	54회	22명
11회	72명	22회	96명	33회	57명	44회	34명	55회	20명

## 학교상징

- 교훈 : 성실
- 교화 : 인동초(화합, 이해)
- 교목 : 은단풍나무(번영, 의지력)

### 학교 발전을 위한 조직

학교운영위원회와 어머니회가 있다.

### 백봉초등학교



〈사진6-40〉 백봉초등학교

### 개요 및 실태

광복 후 이 고장 유지인 김용풍씨가 본인 사랑에서 학생을 모아 한글, 산수 등의 초등학교과정을 교육하다가 이웃의 이해종씨가 자신의 집으로 옮겨 직접 교육하였다. 그 후 학생이 늘어 집이 비좁자 이해종씨가 본인 땅 398여평을 회사하고 주민들의 노력으로 1950년 백암초등학교 백봉분교장으로 설립인가 받아 동년 2월1일 개교하여 오늘의 백봉초등학교가 있게 되었다.

### 학교 연혁

- 1950. 02. 01 : 백암국민학교 백봉 분교장인가.
- 1953. 07. 16 : 백봉국민학교로 승격
- 1955. 05. 01 : 제1회 졸업식(38명)
- 1985. 09. 02 : 병설유치원 개원
- 1996. 03. 01 : 백봉초등학교로 개명
- 2006. 02. 17 : 제 52회 졸업식거행(총 졸업생수 : 2232명)

### 주요활동 및 실적

- 1950년대 : 학교 설립
- 1960년대 : 군 종합 체육대회 여자 송구 우승  
군 무용경연대회 장려상 수상
- 1970년대 : 군 주최 과학 및 공작 실기대회 최우수상 수상  
여자송구 3연승, 남자배구 우승, 여자배구 준우승
- 1980년대 : 군 지정 미술과 수업연구 발표회 실시  
맑고 밝은 노래 부르기 군 대회 최우수상
- 1990년대 : 용인시 예능발표대회 참가(사물부: 우수상)  
한울림 주최 경기도 사물놀이 한마당 으뜸상 수상
- 2000년대 : 제1회 백봉 국회 및 시화전시회 개최, 특기적성교육 우수상  
표창

### 현황

- 학생 현황

각학년 1학급임(학생 총수 102명, 남55, 여47)

1학년 : 남10, 여8. 2학년 : 남10, 여12. 3학년 : 남12, 여9

4학년 : 남 8, 여5 5학년 : 남12, 여 4. 6학년 : 남3, 여9

- 교직원 현황

교장1(남, 총 경력:33년,11월), 교감1(남,총 경력27년2월), 교사5(남4, 여1)

보직교사2 (남) 유치원교사1(여)

기능직1(남) 계약직2(여) 행정직1(여)

교직원 주거지는 수원시 3명, 이천시1명, 성남시 1명이고 9명은 용인시이다.

- 교지현황

총부지 : 13,661평방미터, 대지 : 8,963평방미터, 체육장 : 4, 698평방미터,  
기타: 1.944평방미터

건물현황 : 보통교실 : 7, 관리실3, 과학실1, 도서실1, 유치원1, 컴퓨터실1,  
방송실(음악)1, 급식실1, 숙직실1, 창고1, 화장실1, 교직원사택1, 골프실1.

### 역대 교장명단

대	성명	재직기간	교원수	학급수	학생수	비고
1	김만설	53. 11. 30~61. 05. 03	7	6	324	
2	이은준	61. 05. 04~63. 08. 31	7	6	390	
3	고익성	63. 09. 01~67. 02. 28	9	8	463	
4	정효섭	67. 03. 01~73. 08. 31	12	11	499	
5	이강희	73. 09. 01~73. 10. 12	11	10	447	순직
6	이승화	73. 10. 13~74. 10. 12	11	10	447	
7	안중모	74. 10. 25~83. 08. 31	7	6	233	목련장 수상
8	이강희	83. 09. 01~86. 08. 31	8	6	181	명예퇴임
9	김군천	86. 09. 01~89. 02. 28	8	6	166	정년퇴임
10	이택기	89. 03. 01~91. 02. 28	8	6	166	
11	조순행	91. 03. 01~94. 08. 31	8	6	139	
12	정갑정	94. 09. 01~98. 08. 31	9	6	125	명예퇴임
13	김두환	98. 09. 01~99. 08. 31	9	6	115	
14	윤길영	99. 09. 01~02. 08. 31	9	6	124	
15	유길상	02. 09. 01~	9	6	105	
16	고용규	현재	10	6	102	

### 학교상징

- 교훈 : 성실(誠實) (꿈과 사랑을 키워가는 어린이)
- 교화 : 개나리(명랑, 친근감, 고귀한 빛을 의미)
- 교목 : 전나무(늘 푸른희망 속에서 크고 곧으며 바르게 성장함)

## 수정분교장



&lt;사진6-41&gt; 수정분교 정문



&lt;사진6-42&gt; 수정분교

### 개요 및 실태

가창리 수정산 아래 위치한 학교로 백암 초교와 거리가 먼 관계로 이 고장 주민들이 학교 필요성을 느끼게 되자 재일교포인 박종씨가 학교부지 4천여 평을 희사하여 1968년 가창분교로 개교 하였다. 1970년 학생이 늘자 수정국민학교로 승격하였으나 1990년대 들어 이농현상으로 학생이 감소함에 1999년 900여명의 졸업생을 배출하고 백암초등학교 수정분교가 되어 교육하고 있다.

### 학교연혁

- 1968. 3. 2 : 백암초등학교 가창분교장 설립인가 3학급편성.
- 1970. 3. 1 : 수정 국민학교로 승격.
- 1986. 3. 5 : 병설유치원 개원(1학급)
- 1998. 2. 14 : 제 27회 졸업식
- 1999. 3. 1 : 수정초등학교 백암초등학교 분교장으로 편입.

**현황****학생현황**

학년	1	2	3	4	5	6	계
학생수	3(1)	5(1)	2(2)	6(2)	4(2)	4(1)	24(9)

2006년 현재, ( )는 여학생

**교사현황**

수정분교는 복식 수업(1-2, 3-4, 5-6)을 실시하는 관계로 교사는 3인이다.

**교지 및 시설**

교실수	시 설	교자(평방미터)			총교지
		교지면적	체육장면적	교지면적	
4	3	1103.87	12,234	4,400	13,727.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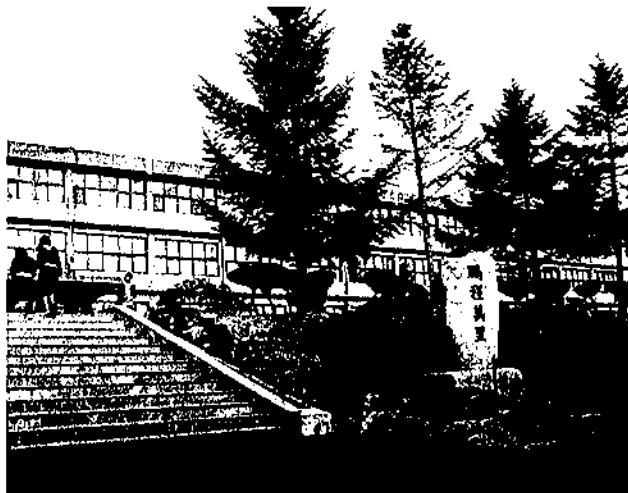
**역대교장 및 교원 학생수**

대	학교장	재직기간	교원수	학급수	학생수	비고
1	윤성구	1970~1973	9	6	230	
2	민훈기	1973~1975	9	6	255	
3	박제록	17일복무	9	6	264	
4	노성호	1975~1977	9	6	275	
5	장준목	1977~1982	9	6	215	
6	황규룡	1982~1985	9	6	162	
7	유치현	1985~1988	9	6	135	
8	조재형	1988~1990	9	6	108	
9	라종우	1990~1993	9	6	92	
10	김재현	1993~1995	9	6	65	
11	최원길	1995~1999	9	6	36	

### 3) 백암 중·고등학교



〈사진6-43〉 백암중고교 정문



〈사진6-44〉 백암 중고교

#### 개요 및 실태

백암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근원이 같으며 현재 한 올타리 내에서 교육하고 있으며 교육과정은 분리 운영되나 교장은 겸임하고 있다.

학교 설립과정을 살펴보면 광복 후 백암지역에 중등교육의 수요는 있으나 학교가 없음에 성결교회 양석봉 목사를 필두로 하여 1947년 미 군정청에 인가를 받고 성결교회 목사 사택을 헐어 교사를 신축하여 외사(당시는 외사면이라 함)고등공민 학교로 출발 교육하기 시작하였다. 당시 교사(教師)는 이지영 선생과 여교사 2명뿐이므로 지역 유치들이 무보수로 교육하였다.

6. 25로 인해 휴교하였다가 1952년 주민들과 피난민들을 교육하기 위하여 이지영선생과 신태원 장로의 노력으로 현 백암초등학교 교사 뒤편 건물을 빌려 교육하였다. 그 후 현 백암중학교 자리에 교사(校舍)를 짓고 1955년 설립 허가를 받아 백암중학교로 개교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또 1965년 12월 백암농업고등학교로 3학급 인가 받아 중학교와 분리하여 교육하기 시작하였다.

### 상징 및 교훈

- 교화 : 개나리(소박한 정신, 밝은 마음, 희망)
- 교목 : 향나무(청진한 기풍, 정의, 의지)
- 교훈 : 성실(정성스럽고 참되어 거짓이 없음)

### 학교현황

( )는 고등학교 임

역대 교장명단 및 교원, 학생 수

대	학교장	재직기간	교원수	학급수	학생수
1	전문규	1955~1959		3	185
2	박삼영	1959~1960		3	218
3	정윤호	1960~1965		6	279
4	장정희	1965~1966		6(1)	340(39)
5	문영진	1966~1968		9(3)	472(62)
6	이해철	1968~1971		9(30)	497(84)
7	이정성	1971~1975		12(9)	776(174)
8	박종우	1975~1979		15(9)	730(477)
9	양승대	1979~1985		15(12)	609(599)
10	이민구	1985~1986	19	15(12)	629(403)
11	김기찬	1986~1988	37(22)	15(9)	541(380)
12	유병욱	1988~1991	39(22)	15(9)	446(452)
13	김영조	1991~1993	23(22)	11(9)	463(403)
14	김진찬	1993~1995	24(22)	12(9)	465(380)
15	이충웅	1995~1998	22(22)	12(9)	442(371)
16	강본순	1998~1999	23(22)	12(9)	386(346)
17	진홍행	1999~	20(24)	11(11)	375(343)
18					
19					

## 백암중학교

### 연혁

- 1947년 9. 5 : 외사고등공민학교인가.
- 1957년 3. 18 : 외사고등공민학교 6회 졸업.
- 1955년 4. 27 : 백암중학교 6학급인가.
- 1992년 3. 1 : 12학급으로 학적 변경.
- 2006년 2. : 제49회 125명 졸업

### 실태

- 학교 : 여교사 비율이 높은 편이며 교사의 교육경력이 높고 교사의 연령분포는 넓은 편임.
- 학생 : 학력의 개인차가 심한 편이며 주도적 학습태도가 부족한 편임, 주변의 정리 정돈 및 청결생활이 미흡.
- 학부모 : 농업, 축산업, 회사원순이며 학력수준이 낮은 편임.
- 지역사회 : 자연환경이 좋은 편이나 문화시설이 부족하고 청소년 문화공간이 부족하다.

### 학교 현황

학생현황

구분	학급수	학생수		
		남	녀	계
1	4	67	46	113
2	4	67	53	120
3	4	75	50	125
계	12	209	149	358

### 교원현황

교장, 교감 각 1명 (교장은 중고 겸임) 부장교사 9명, 교사 12 총 22명이며 과목별로 보면 국어 3, 도덕 1, 사회 2, 수학 2, 과학 2, 기술가정 2, 체육 2, 음악 1, 미

술1, 영어2, 컴퓨터1, 보건1특수1 계21명

### 주요 시설 현황

구분	기준	보유	과부족	비고	구분	기준	보유	과부족	비고
부지	교지	7,500	5.147		중고공용	도서실	1	1	중
	체육장	9.100	9.118		중고공용	진로상담실	1	0	-1
	실습지	7,522	23,786		중고공용	컴퓨터실	1	1	중
보통교실	12	12		증	부속 건물	숙직실	1	1	중고공용
과학실	1	1		증		창고	1	1	중고공용
음악실	1	1		중고공용		화장실	7	7	중고공용
미술실	1	1		증		사택	1	1	중고공용
가사실	1	1		중고공용	관리실	교장실	1	1	중고공용
기술실	1	1		증		행정실	1	1	중고공용
보건실	1	1		중고공용		교무실	1	1	증
휴게실	1	1		증	방송실	1	1		중고공용
어학실	1	0	-1		조리실및 식당	1	1		중고공용

### 학교발전을 위한 조직

발전을 위한 조직으로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어머니회가 있으며 동창회가 운영되고 있다.

### 백암 고등학교

#### 연혁

- 1965. 12. 10 : 백암농업고등학교 3학급인가(백암중학교와 교명분리)
- 1972. 8. 2 : 백암고등학교로 교명변경
- 1976. 8. 4 : 백암종합고등학교로 교명변경(보통과6, 상과3)
- 2001. 9. 24 : 보통과 8학급, 실과 3학급으로 학칙변경
- 2005. 3. 1 : 백암고등학교로 교명변경.
- 2006. 2. 8 : 고 제40회 97명 졸업(연 4,670명)



### 실태

- 지역사회 : 자연환경이 폐적하나 학생통학이 불편하고 교육여건 및 문화 시설부족하다.
- 학생 : 순수한 성품을 갖고 있으나 기초학력이 부족하고 의욕이 저조하며 다양한 문화체험이 부족하다
- 학부모 : 대부분 농업과 축산업에 종사하며 자녀교육은 학교에만 의존하는 편임
- 학교 : 중·고 병설 및 남녀공학의 소규모 학교로 교육과정 운영이 어려운 형편임.  
교육여건이 좋지 않은 관계로 방과 후 활동이 제약이 있음.

### 현황

#### 학생현황

구분	학급수	학생수			계
		남	녀	계	
정보처리과	3	138	132	270	
보통과	9	51	21	72	
계	12	189	153	342	

#### 교직원 현황

구분	교원					일반직				계
	교장	교감	부장	교사	계	주사	기능직	사무원	계	
정원	1	1	10	14	26	1	2	1	4	30
현원	1	1	10	14	26	1	2	1	4	30

### 교과별 교사

도덕1, 국어3, 수학3, 일사1, 역사1, 지리1, 물리2, 생물1, 체육1, 미술1, 한문1, 영어3, 가정1, 컴퓨터1, 상업1, 합계: 24(남16, 여8명, 연령별: 20대3, 30대19, 40대11명)

### 시설현황

중학교와 대동소이하며 정보처리실1, 컴퓨터실1, 멀티미디어실1, 동아리실이 있으며 중학교화 함께 사용하고 있다.

### 학교조직

효과적인 교육을 위하여 교사들이 각종 교무를 분장하고 있으며 이를 뒷받침하고 교사들의 참여확대와 민주적인 학내 의사결정을 위하여 각종 위원회를 두고 있다

### 학교교육을 돋는 단체

#### 백암 중고 총동문회

1990년대 초 백암 중고등학교 동문들이 동문간에 친목과 유대를 강화하고 모교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총동문회를 발족하였다. 동문회는 매년 4월경에 총회를 개최하여 모교에 행사시 장학금 및 모교발전 기금을 전달하고 있다.

특히 2003년부터 동문회 기금마련 1억원 목표로 모금활동을 시작하여 회장 유정배(5백만원 중16회 김재식 3백만원을 필두로 하여 6천여 만원을 모금하였다,

조직은 회장1인, 부회장4인, 총무1인, 회계1인 운영위원35인으로 구성되었다. 역대 회장은 김덕희(중1회), 김석봉(중2회), 정용대(중3회), 강경구9중6회), 박경호(중8회), 현회장 유정배(중6회)이다.

백암장학회 2004년 회원 50명으로 발족하여 회장은 박경호(전 시의회의원)씨가 선임되었다.(백암소식지 2호(2004))

#### 재경백암 동문회

백암초등학교, 백암중학교, 백암고등학교 출신들 중 서울에 거주하는 이들이 친목과 상호정보교환, 후배양성에 보탬이 되게 하고자 1992년 조직한 동문회이다.

본회의 활동은 매년 체육대회(서울)를 실시하여 친목을 도모하며 이때 모

금을 하여 후배들에게 장학금을 지급 한다. 또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상호 정보를 교환하며 특히 회원각자가 몸담고 있는 직장을 홍보하기도 한다. 현재 회장은 이상기(회사대표)이다.

### 제3절 사회교육기관

사회교육기관이란 학교이외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기관을 말하며 각종 시설 학원, 어린이집, 연구소, 연수원, 각 교회에서 운영하는 어린이 성경학교 등이 있고, 현재는 운영하고 있지 않으나 1990년대 4,5년간 운영하던 농협에서 주관하는 주부 대학이 있었다.

#### 1. 연수원 및 연구소

백암의 연수원 및 연구소는 고안리의 고등기술연구소, 가창리의 전자산업 기술연구소, 고안리의 대우 중앙연구소가 있으며 이들 중 고등기술연구소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AE고등기술 연구소



〈사진6-45〉 IAE고등기술 연구소

21세기 새로운 기술을 선도하기 위하여 학교, 기업, 연구소 등의 고유의 영역을 살리면서 산학간의 관계를 밀접히 연관시키 효과적인 연구를 도모하기 위하여 1990년대 초 설립 된 기관이다.

본 연구원은 연구개발 분야(IAE연구 센터)와 공학 교육 분야로 나누어 운영하고 있다.

#### • 연구 개발 분야

본연구원의 연구과제는 정부정책과제와 조합원사 용역 과제로 나누어지며 정부정책과제로는 매년 각 부처(과기부, 산자부, 환경부 등)에서 정부연구 개발 사업에 대하여 내부적으로 연구 심의위원회를 거쳐 과제 신청을 결정하고 수행 한다. 그리고 기술협력을 원하는 조합사나 타기관의 연구용역 형태로 수행한다. 주요 연구는 로봇 및 생산기술, 프랜트엔지니어링, 엔지니어링정보기술, 프리즈마기술, 포터닉스, 기술 이전 및 창업보육센터, 제품기술 분야로 나누어 연구하고 있다.

2006년 현재 본 연구원은 57건의 연구 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 • 공학교육 분야

차세대 기술 개발을 이끌어 나아갈 전문기술인력을 육성하기 위하여 교육 인적자원부 정식인가를 받아 석, 박사 학위과정인 시스템 공학과와 비학위교육을 전담하는 기술교육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 2. 학원 및 어린이집, 유치원

백암에서 사설학원은 1984년 백암 중앙교회를 개척할 당시 조복희 목사가 교회 내에 주산, 부기 타자교육시설을 갖추고 무료로 교육하던 것이 백암 사설 교육의 시원이다.

현재의 사설교육 기관은 다음과 같다.

사설유치원으로 백봉유치원(원장 차복자 백봉리), 예림유치원(원장 남홍수 근창리), 송림유치원(원장 김성옥 근곡리), 예남유치원(원장 김종혁 근창리)

가 있다.

어린이집은 유치원 이전의 아동들을 돌보는 기관으로 백암어린이집이 있다.

### 3. 학원

초중고 학생들의 특기교육, 보충교육을 하는 학원은 다음과 같다

- 백암어린이집 : 김경운, 1997. 3. (339-1008) 백암리 461
- 혜인속셈학원 : 박명숙, 1995. 2 (333-4145) 백암리 447
- 혜인컴퓨터학원 : 박명재, 1992. 9 (334-4348) 백암리 370-1
- 청솔 보습학원 : 고애란, 2006. 3 (332-9077) 근창리
- 백암 영재보습음악학원 : 김석원, 1995. 12. (332-3234) 근창리
- 미미음악학원 : 진재선, 1996. 5 (332-4857) 근창리
- 수재 에드네트학원 : 장진숙, 1997. 10 (334-0121) 근창리
- 성대보습학원 : 김영식, 2005. 1 (333-4632) 근창리
- 백암 솔로몬 논술학원 : 진호석, 2006. 2 (332-4025) 근창리
- 솔로몬 미술 교습소 : 오진아, 2005. 9 (339-2171) 근창리

### 4. 백봉노인정 서당



〈사진6-46〉 백봉노인정서당

백봉노인정에서 이 고장 학자인 이규창선생이 하계, 동계여름방학을 이용하여 초중고 학생들에게 무료로 한자교육을 시키어 아동들로 하여금 한자와 친숙하게 하여 학습능력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 5. 사회체육기관

### 1) 백암체육회와 그 산하단체

본회는 용인시 체육회 백암면 지부로서 보통 백암체육회라 부르고 있다.

백암체육회는 각종체육활동을 지역주민에게 보급함으로서 면민들의 건강 증진과 면민들 간에 친목을 도모하고 보다 나은 여가선용을 하게 할 목적으로 설립하였다.

1997년 이전에는 체육회가 관주도형으로 이끌어졌기 때문에 면장이 당연직 회장으로서 면 체육회를 이끌었으나 1997년 이후 민간중심의 체육회로 전환되면서 체육회임원들이 회장을 선출하고 회장을 중심으로 체육회를 이끌어 나아가고 있다.

체육회는 면의 각 체육단체를 지원보조하며 체육행사시 행사운영, 경비 등을 보조하는 일을 담당하고 있다. 그리고 면민의 날 행사, 시민의 날 행사를 주관하면서 백암 체육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다.

체육회의 조직은 회장(황금주), 부회장(곽길영, 김난수, 이성구), 사무국장(윤기현), 감사(안경섭, 신종운)이며 이사는 백암 59개 마을 이상 모두가 이사를 맡고 있다.

조직원의 회비는 년 10만원이며 필요시 찬조와 특별회비로 운영하고 있다. 현재 산하단체로 백암축구회, 백암 씨름협회, 백암 테니스회, 백암 배드민턴회, 백암 게이트볼회, 백암 국궁회가 있다.

### 백암 축구회

백암에 거주하면서 축구를 사랑하는 이들이 자신의 건강관리는 물론 축구 동호인 간에 친목을 도모하면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 할 목적으로 1996년

백암 축구회를 결성하였다.

회원들의 활동은 매주 초교, 중학교 운동장에서 훈련을 하고 매년, 백암, 백봉, 장평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초등학교 대항 어린이 축구대회를 개최하여주고 행사 후에 각 학교 어린이들에게 학용품을 전달하기도 한다. 또 백암의 직장인들을 위하여 직장대항 축구대회를 매년 개최하여 주고 있다.

회의 경비는 회원들의 회비로 충당하며 조직은 회장 이상기(李相基), 부회장은 운영, 시설, 재정, 경기에 각 1명씩 4명의 부회장이 있다. 회원은 50여명에 이른다.

### 게이트볼협회

1996년 이동찬의 주선으로 이 고장 어른들이 자신의 건강과 여가 선용을 위하여 협회를 구성하고 활동하기 시작하였다.

현재 회원은 70대이상으로 45명(여10명)이며 매주 화요일, 금요일 오후에 정기적으로 운동하며 그 이외 날은 회원각자 운동을 한다.

회원의 회비는 규약상 년4만원으로 하고 있으나 거의 걷지 아니하며 주변의 독지가들의 후원금으로 운영하고 있다.

그간의 전적을 보면 1998년 10월 용인시농협 협회장기 대회 공동3위(용인시 공설운동장) 2001년 4월 게이트볼연합회장기 대회 공동3위(용인시 공설운동장)에 입상하였다.

조직은 회장1인 부회장1인 총무 1인 감사2인으로 구성되었으며 운동장은 제1구장 백암리 산9번지의 실내구장(330m<sup>2</sup>) 제2구장 박곡리 원대(330m<sup>2</sup>)에 있다.

역대 회장은 초대 이동찬(박곡리), 2대 윤원호(근삼리), 3대 박제원(근곡리), 4대 윤원호(근삼리 현재)이다.

### 배드민턴 협회

배드민턴을 좋아하는 이들이 2006년 3월 협회를 구성하여 자신의 건강을 지키면서 친목을 도모할 목적으로 협회를 조직하였다.

회원은 45명이(여 12명) 회장1인 부회장2인, 총무 1인과 지도자(코치)1인,

감사2인 운영위원3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운동 및 게임은 백암고등학교 코트(5장)에서 하며 시간은 오후 6시~10시까지 하고 있다.

그간 전적으로 2006년 7월 연합회장기 대회 참가하여 장년부 1등 2명, 2등 3명, 3등 5명

2006년 11월 시장기대회참가(15명)

### 백봉 테니스회

백봉초등학교에 농촌 특화사업의 일환으로 정부에서 지원받아 테니스장, 골프연습장을 설립함에 초등학교 운영위원장이었던 박세환의 주선으로 백봉초교 운영위원회, 체육진흥회, 어머니회를 중심으로 학부형들이 주축이 되어 백봉테니스 회를 결성 야간으로 운동을 하고 있다.

현재회원은 25명이며 여성 15명이다. 역대회장은 초대 이명재, 2대 김해봉이다.



〈사진6-47〉 백암 테니스장

### 백암국궁협회

1996년 김선기 외 10여명이 남녀노소 누구나 심신수련 할 수 있는 국궁모임을 같기로하고 동년 6월 500만원을 마련하여 백암리 청미천 부지461-26번지에 콘테이너 사무실과 과녁 3개를 마련하여 궁도장을 만든 한 것이 오늘 날 수양정의 모태가 되었다.

초보단계의 백암 궁도인들은 보다 양질의 국궁을 전수받기위하여 윤하의 9단을 초빙하여 전수를 받고 훈련하여 1998년 청미천 임시정에서 타시군 5개정과 친선경기를 치루었다.

2001년 용인시 후원으로 백암시민 공원 설립시 국궁회에서 철골 콘크리트 건물 40평을 짓고 정식 궁도장 수양정을 설립하게되었다.

현재 도장규모는 6000평방미터이며 조립식 가설건물 약 40평이 있다.

과녁은 3개이며 공동장비 활 5정, 화살 30개가 있다.

회원은 25명(남19, 여6)이고 사두(오세탁), 고문(김선기, 이경진) 사법(서윤석), 부사두(안상진, 임종무) 감사(전병욱)총무(유원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사진6-48〉 수양정 활쏘기



〈사진6-49〉 수양정 활터

### 역대 전적

- 2000년 : 대구광역시장배 전국남녀 궁도대회 개인전 1위(윤한의)
- 2001년 : 용인시 제 3회 처인성 승첩 기념 전국 남녀 궁도대회 개최.
- 2004년 : 전국 국민생활체육대회 대축제(전남광주)단체전 1위 개인전 2위(김상태).
- 2005년 : 원주시장배 전국남녀 궁도대회 단체전 우승(서윤석, 이병래, 이효직, 이병선)
- 2006년 : 충남홍성 최영장군 탄신기념 전국남녀 궁도대회 개인전 1위(서윤석)

### 씨름협회

옛부터 백암은 씨름의 고장이라 백암주민들은 자랑하고 있다 일제강점기로부터 백암은 백중 단오 등에 현 백암 고등학교 앞 개울근처에서 큰 씨름대회가 벌어져 구경거리가 대단하였다고 전하여진다. 이러한 대회는 70년대까지 이어 지다가 1980년대 들어 학교씨름이 활성화되면서 학교체육으로 변모되었다.

1990년대 들어 이 고장 씨름을 좋아하는 이들이 동호인들 간에 친목과 체력

단련을 하고 백암 씨름 발전을 위하여 백암중 감독 장덕재가 주축이되어 백암 씨름협회를 결성하였다.

협회원들은 백암초교, 백암중학교 씨름부를 물심 양면으로 지원하고 백암 중학교 씨름장에서 운동하고 있다.

횡성한우배 전국장사 씨름대회에서 임순옥이 여자 80kg급 이하에서 개인 전 우승,

현재회원은 주로 기관장들이며 50여명에 이른다. 이들 중 여자회원이 10여 명에 이다.

역대 회장은 초대 조성환 (현 축협조합장), 2대 김주홍, 3대 윤충남, 4대 이명재(현)

백암출신 씨름인으로 전 LG프로선수 조우현, 백암중감독 장덕재, 민속씨름 심판이며 백암초교 감독인 김주열 등이 있다.

## 2) 백암체육회 비 산하단체

### 백암 산악회

백암에 산을 좋아하는 이들이 외지의 산악회에 가입하여 등산 활동을 하다가 백암 주민들중 산을 좋아하는 이들이 많음을 알고 이길진, 장덕진 제씨들이 중심이 되어 1996년 백암주민 중심으로 백암 산악회를 조직 활동하기 시작하였다.

이들은 매월 첫 주 월요일에 관광차를 이용하여 전국의 명산을 찾아 등산 활동을 하며 월 회비는 참가자에 한하여 만원으로 정하고 있다.

본 산악회는 매년 10월4일 창립기념일을 맞이하여 백암면 각리에 관광차를 보내어 노인들을 모셔다가 경로잔치를 하며 아울러 소년 소녀 가장 돋기를 실시하여 모범된 단체로 정평이 나있다.

회원은 300여명에 이르며 백암 산악회가 조직됨을 계기로 하여 현재 백암에 20여개의 산악회가 구성되어 있다.

본회의 조직은 회장, 총무(안상진) 감사로 이루어져 있다.

### 역대 회장

- 초대 : 이길진 (백암리)
- 2대 : 김근성 (근창리)
- 3대 : 장덕진 (근창리)
- 4대 : 허근(근곡리)
- 5대 : 정덕진(근창리) 제씨

### 백암회

1996년 백암의 골프동호인들이 친목도모와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백암회라는 명칭으로 백암 골프동호인들이 조직을 형성하였다.

처음회원은 15명이었으며 현재는 20명에 이른다.

역대 회장으로 조성완(박곡리), 김용복(용천리), 정만화(박곡리), 심우범(백봉리), 권석주(양지리) 제씨들이다.

### 구봉업우회

1990년대 초 수렵을 즐기는 이들이 서로 간에 친목도모와 정보를 교환하기 위하여 구봉업우회를 조직 활동 하고 있다.

회원들은 매년 7월1일~2월 까지 수렵기간이 정하여져 있어 이 기간동안에 전국각지로 사냥을 떠나며 길게는 일주일정도 걸리기도 한다

구봉업우회 설립당시는 5~6명으로 구성되었으나 동호인들이 늘어남에 현재는 25명에 이른다.

### 각종체육행사

#### 면민의 날 행사

면민의 날 행사는 면민들이 각종 경기 및 행사에 참여함으로서 면민의 체력 향상은 물론 면민의 친목과 화합을 통하여 향토애를 갖게 함을 목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날 행사는 체육행사가 주가 되며 부가행사로 노래자랑, 국악 공연등



〈사진6-50〉 축하깃발



&lt;사진6-51&gt; 면민체육대회장입구



&lt;사진6-52&gt; 순대만들기



&lt;사진6-53&gt; 안절미치기

문화행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 행사는 1996년부터 2년마다 9월에 실시하고 현재 6회를 맞이하였으며 주로 백암면 체육 회가 주관하였다.

이날 기념식을 할 때 매회 효자 효부상을 주어 면민들에게 효 정신을 기리며 지역발전과 체육발전에 공헌 한 이들에게 감사 패 및 상패를 수여하여 그 공로를 면민의 이름으로 치하하고 있다. 특히 4회 때에는 백옥쌀, 백암포도, 백암순대, 성산한방포크, 옥로주, 상촌식품, 한택식물원, 황새울 관광 농원 등에 대한 영상홍보물을 제작하여 백암면의 위상을 타 지역에 알리는 행사도 가졌다.

6회 때에는 체육행사를 실시하면서 떡치기, 순대 만들기 시범이 있었고 새끼꼬기, 이영역기, 벼 가마지고 달리기 등의 행사를 가졌다.

2006년 9월 3일(일) 실시한 체육행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12개 리 팀)



&lt;사진6-54&gt; 축하공연



&lt;사진6-55&gt; 안내현수막

〈도표6-3〉

백암면민 체육행사 내용(2006.9.3)

	참가위원	참가범위	경기방법
축구	감독1명, 남자 13명 (후보2명)	20대 4명(1987. 12. 31이전 출생), 30대 4명 (1977. 12. 31이전 출생자), 40대이상 5명 (1967. 12. 31이전 출생자(단 20, 30대 선수 부족시 20~30대로, 30~40대로 한다)	토너먼트식으로 경기하며 전 후반 30분씩으로 한다.
씨름	감독 1명, 선수 8명	여자일반부 2명(후보1명), 청년부(만 40세 이하) 3명(후보1명), 장년부(만 40세 이상) 3명(후보1명)	토너먼트이며 현직 선수, 감독, 코치는 제외한다.
줄다리기	감독1명, 선수 22명	남자11명(후보1명), 여자11명(후보1명)	토너먼트식으로 하며 3전2승제(시간전 30초) (신발은 육상 렌닝화로 통일)
400m계주	감독 1명, 선수 8명	일반여자 2명(후보1명), 일반남자 2명(후보1명), 부녀회장 1명, 리장 또는 새마을 지도자 2명 (후보 1명) 까지 결승에 진출	출전 순서는 부녀회장→일반여자→이장→ 일반남자로 하며 12개팀을 6개 팀으로 예선전 실시 각조 3위

### 기타 체육행사

2004년 4월 세광정신 요양원에서 환우 280명 직원가족 포함 380여명이 미니축구, 기마달리기 등 세광가족축제 한마당이 열렸었다.

#### · 동부지역 민간기동순찰대 체육대회

제1회 동부지역 민기대 가족한마음 체육대회가 6월6일 종신대 운동장에서 개최되어 백암면이 우승 하였다. 축구, 홀라호프, 족구, 줄넘기등의 종목이 있었다.

#### · 통리장 연합체육대회 참가

백암면 58개 리장단은 7월1일 용인시 통리장연합회가 주최하는 통리장 체육대회에 참가 하였다.

· 제7회 백암축구협회 회장기(회장 지효구) 백암면직장대항축구대회가 6월27일 10시부터 백암종고 운동장 및 초교운동장에서 개최되었다.

#### · 각 학교 동문 체육대회; 매년 각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동창회에서 체육개

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재경 백암초중고등학교 동창회에서도 서울에서 체육대회를 개최하여 후배들에 장학금을 모금 전달하고 있다.

- 백암지역 3개 초등학교축구대회

매년 백암축구협회가 주최하는 초등학교 대항 축구대회가 있다. 2004년 4월 개최한 대회에서 백암초교가 우승하고 행사후 3백여만원에 상당한 학용품을 3개교에 선물을 했다.

- 백암면 직장대항 축구대회

2004년 제7회 백암축구협회 회장기(회장 지효구)백암면직장대항축구대회가 6월27일 10시부터 백암종고 운동장 및 초교운동장에서 개최되었다.

### 3) 학교체육

학교체육은 학교 내에서 하는 체육활동을 말하며 중고등학교는 정규시간에 주당 2시간씩, 초등학교는 2시간씩 실시하고 있으며 방과 후에 동아리들끼리 모여 축구, 농구 등을 하고 월 2회 특별활동시간에 체육활동을 하는 학생들도 있다.

그리고 특별히 선수를 육성하기 위하여 체육부를 두어 지도하는 경우가 있어 이들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백암 중고등학교에 축구부, 백암중학교, 초등학교에 씨름부가 있다.

#### 백암초 씨름부

1998년 창설되었으며 창설당시 선수는 8~9명이었다. 감독은 중학교 감독인 장덕제가 겸임으로 지도하다가 2000년 5월 양지 초교 감독이었던 김주열이 감독으로 부임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현재 선수는 6학년 5명, 5학년 1명, 4학년 2명이며 학교에 학생 수가 줄면서 씨름부 지원자가 줄어드는 형편에 놓여있다.

선수들의 훈련 시간은 학교공부가 끝난 후 3시~5시까지 실시하며 장소는 백암중학교 씨름장에서 훈련 하고 있다 이들은 졸업 후 모두 백암중학교로 진학하여 선수생활을 한다.



## 각종대회 주요 입상 실적

2001년	제 30회전국 소년체육대회 용사급 3위(이재근) 제 21회 회장기 도내 장사 씨름대회 단체전 준우승
2002년	제 22회 회장기 도내 장사 시름대회 소장급1위(김광현), 용사급 2위(이재현), 장사급 2위(김현종)
2003년	제32회전국소년 체육대회 소장급3위(김광현) 제17회 전국시도대항 장사씨름대회 장사급3위(김현종0, 청정급 2위(김광현)
2004년	제33회 전국소년 체육대회 장사급 2위(김재환)
2005년	영주소백산전국장사씨름대회 단체전 3위 제35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청장급 2위(조동현)
2006년	제 60회전국씨름선수권대회 용장급3위(조동희) 2006년 횡성한우배전국 씨름대회 용장급1위 (조동희). 경장급3위 (김용준).

## 백암 중학교 씨름부

백암중학교에서 씨름부가 형성되어 오다가 정식으로 1983년 백암출신 조우연이 백암중학교에 씨름 부를 창단하여 전국 유명 씨름부로 성장하였다.

현재 중등부 씨름선수로는 1학년 6명 2학년 8명 3학년 4명 모두 18명이며 1993년에 부임하여온 장덕재 감독이 지도하고 있다. 학생은 양지 초교, 왕산 초교, 용인초교, 백암초교에서 모집하며 졸업 후 과거에는 수원농업고등학교, 안양의 양명고등학교, 등지로 진학하였으나 현재는 용인고등학교로 진학하여 선수 생활을 한다.

감독 및 선수 모두는 기숙사에서 기숙하며 아침 2시간 운동하고 등교하여 오후 3시부터 10시까지 훈련을 한다

본교 출신중에 프로에 신창건설소속 원종수, 가있고 아마츄어에 용인 백옥 쌀팀의 김진우, 김홍석이 활동 하고 있다.

그간의 전적을 보면 개인수상은 수백회에 이른다.

### 중요 단체전 우승

1999년	대통령기 전국대회 단체우승(동해 망상 해수욕장) 진로 그룹배 전국대회 단체우승(전북 김제)
2003년	횡성 한우 배 전국 장사씨름대회 중등부 단체우승 전국 선수권대회 중등부 단체우승(양상해수욕장)
2004년	전국선수권대회 중등부 단체전 우승(여수) 백암중의 박대령(경장급), 박재룡(청장급)에서 3위를 차지하였다.
2005년	김성한우배 전국장사 씨름대회 중등부 단체전 우승(마산) 전국 선수권 장사 씨름대회 중등부 단체전 우승(광양)
2006년	횡성한우배 전국장사 씨름대회 중등부 단체전 우승.

### 백암중학교 축구부

용인시 축구센터에서 2001년 9월 전국 각 초등학교 6학년을 대상으로 교육생을 선발하여 동년 11월 용인시 청소년 수련원에서 입소식을 가졌다.

이들은 2002년 1월18일부터 2월5일 까지 중국천지 훈련을 하고 동년 3월 2일 일부가 백암중학교로 입학하면서 백암중학교 축구부가 탄생되었다.

선수들은 용인시 축구센터(원삼면 득성리)에서 숙식하고 스쿨버스로 학교에와 수업하고 센터에서 연습하고 있다.

현재 축구부원은 모두 46명(1학년 19, 2학년 13, 3학년 14명)이며 세 학년 중 1학년 출신 학교를 보면 경기 수지4명, 경기 신곡2, 경기 포곡2명, 성남 한솔2명,이며 경기 부양, 경기 율동, 대전 중앙, 대전 판암, 경기 오전, 서울 신곡, 인천 까치울, 충남 성거, 경기 무원 각각 1명씩이다.

### 선수지도자

총감독	송명대(1958~)	청소년 국가대표(1977년), 2003년 아시아학생선수권대회 감독,
감독	이명진(1973~)	대학U-대회출전(1995), 부산대우프로축구단(1996~2001)
코치	김정수(1975~)	청소년대표(1992),
	전복식(1975~)	서울시청축구단(1994~1997)
		GK코치2인과 의무트레이너 4명이 선수들을 돌보고 있다.

### 백암중 전적

2003년	경기도저학년리그전(최종토너먼트) 준우승.
2004년	제5회 대구광역시장기축구대회 우승. 제59회전국중등부축구선수권대회 우승.
2005년	제10회 금강대기중고축구대회 우승.
2006년	제42회 한국춘계중학교축구연맹정 8강진출. 제7회대구광역시장기 전국 중학교 축구대회 우승.

### 백암고 축구부

2001년 용인시축구센터에서 전국 각 중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선수를 선발하여 2002년 3월2일 일부는 신갈고등학교로 일부는 백암고등학교에 입학하여 백암고등학교 축구부가 창단 되었다.

선수들은 용인시 축구센터(용인시 원삼면 독성리)에서 훈련과 숙식을 하고 학교에서는 수업을 받는다.

현재 부원은 44명(3학년10, 2학년19, 1학년15)이며 3학년 출신중학교 별로 보면 풍생중4, 인천 제물포, 포천, 서울 중대부중, 서울 경신중, 경기 백마중, 목포 제일중이 각각 1명씩이다.

특히 2학년 12명, 1학년6명이 백암중학교 출신이다.

### 선수지도자

총감독	송영대(1958~)	청소년 국가대표(1977년), 2003년 아시아학생선수권대회 감독
감독	박광현(1967~)	아시안컵대회 국가대표(1996년), 일화프로축구단(1992~1999)
코치	오명관(1974~)	부천SK프로축구단(2002~2004), 올림픽국가대표(1994)
그 외	축구센터내의 축구부(원삼중, 백암중, 신갈고, 백암고)를 모두 통괄하는 GK2명과 의무진 4명	

### 유명 출신선수

정인환(1기)	전북프로축구단 입단(국가대표상비군, 올림픽대표선발, 청소년U-19대표)
백승민(1기)	전남프로축구단 입단(올림픽대표선발, 청소년U-19대표)
양동원(1기)	대전프로축구단입단(올림픽대표선발)
이종민(2기)	일본J리그입단

박정혜, 김명운(승실대진학) 정의도(연세대진학)3인 모두 2기로 청소년U-19대표.

## 전적

2002년	도지사기 축구대회 3위 입상
2003년	제 58회 전국고교 축구선수권대회: 8강진출
2004년	제 6회 백운기전국우수고교축구대회 우승 제 27회 교육간기 축구대회(고등부) 우승
2005년	제7회 백운기전국우수고교축구대회 우승 제41회 한국고등학교추계축구연맹전 3위
2006년	백운기전국 우수고교축구대회 준우승 2006년 진학현황 : 연세대 1명, 건국대 2명, 경희대 1명, 숭실대 1명, 호남대1명, 대구대 1명.

## 4) 체육시설

### 재단법인 재남무술원(국제연맹합기회)



〈사진6-56〉 재단법인 재남무술원(국제연맹합기회)

한기도, 한검도를 창안한 명재남국사의 유지를 받들어 국제연맹 합기회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합기도무술(권술, 죽술, 기합, 호신법등)의 모든 것을 범세 계적무술로 발전시킴으로서 세계속에 한민족 전통무예를 보급시키기 위하여 설립하였다.

그리고 국제연맹 합기도라는 하부기관을 두어 각종 행사 및 대회를 주관하



여 해외 각지부의 발전을 도모할 목적으로 설립하였다.

### 연혁

1969년	대한민국 합기술 창설
1974년	국제연맹 합기회 창설
1993년	백암면 가창리 522-1번지로 국제연맹 합기회, 한기도 세계본부 이전
2000년	재단법인 재남무술원 협회(문화 관광부 협회 제207호) 경찰청 자격증 가산점 대상단체로 인정됨
2006년	현재 국내 15개 시도 지부 및 60여개국에 본부 및 지부를 두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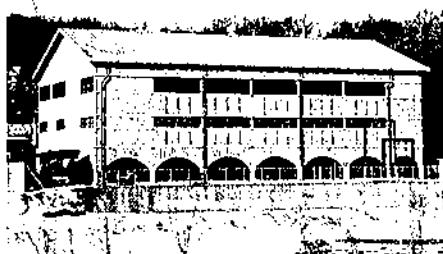
### 주최한 대회

1990년	국제합기도무술대회(장충체육관), 국내선수 1000여명, 외국선수 30명.
1994년	인천실내체육관, 국내선수 1000여명, 외국선수 7개국(미국, 브라질, 벨기에, 네델란드, 독일, 영국, 오스트리아) 40여명.
1997년	국제 HKD무술대회(용인 무술원) 국내선수 1200명, 외국선수 10개국 70여명.
2000년	국제 HKD 무술대회(용인 무술원) 국내선수 1000여명, 외국선수 12개국 100여명.
2002년	국제 HKD 무술대회(성남실내체육관) 국내선수 1500여명, 외국선수 13개국 200여명.
2004년	국제합기도 무술대회(용인실내 체육관) 국내선수 1000여명, 외국선수 15개국 120여명.

### 현황

현재 본법인 소속 국내 15개 시도에 500여 곳의 해외에 60여개국 본부 및 지부를 두고 있다. 현재까지 약 30만 명의 유단자를 배출하였다.

본 무술원의 규모는 대지 5000평, 건물 700평(체육관 500평, 식당 80평, 숙소 100평 기타 50평)



백암중고등학교 체육관(선진관)

2004년 개관된 선진관은 용인시, 경기도교육청 지원과 동창회 및 지역사회 협조로 개관되었으며 체육관은 1층에 초중등학교 씨름부가 사용하는 씨름장, 2층에 지역주민 및 학생 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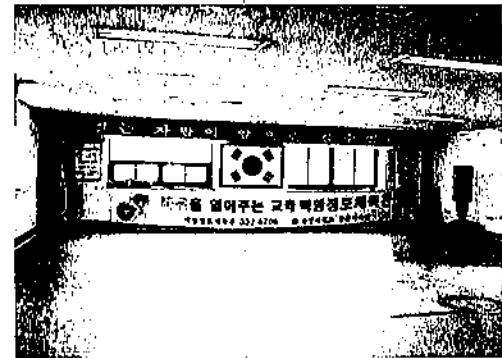
직원이 사용하는 헬스장, 배드민턴장, 농구장이 있다. 3층은 다목적실로 사용하고 있다. 연면적은 4,216평방미터이다.

### 백암초등학교체육관

1984년 설립, 665평방미터. 학생들이 체육시간에 활용 및 각종행사.

### 정도체육관

근창리 19-3번지에 위치한 태권도장으로 1980년대 중반 개관되었으며 2000년대 초 근창리로 이주하였다.  
관장은 유정식이다.



〈시진6-58〉 정도체육관

### 당구장

울림피아당구장 : 백암리에 있는 당구장으로 당구대가 4개이며 2000년대 초에 개설되었다.

허리우드당구장 : 백암리에 있는 당구장으로 1990년대 초 개설하였으며 현재 당구대가 5개이다.

### 기타체육시설

등산로 : 두부산~구봉산 코스는 3시간거리이며 등산로에 쉼터가 마련되어 있다. 쓰레산, 수정산, 봉산등에 등산로가 형성되어 있다.

자전거도로 : 면사무소 뒤편 청미천에 5키로미터의 자전거도로를 형성하고 길가에 이팝나무 317주, 왕버섯나무 362주를 심었다.

테니스장 : 중고등학교(1면), 백암리 459-3번지(2면), 장평리 658(1면), 백봉리 202(1면)

축구장 : 각 학교 운동장 및 제일약품전용 축구장(잔디구장)

게이트 볼장 : 백암리 산9번지(400평방미터, 2004년 조성))

골프연습장 : 6타석으로 백봉리에 있다. 그리고 배구, 족구장이 황새울 과광 농원에 있다.

### 5) 백암의 체육인

명재남(1938~1999)

전남 강진에서 태어나 1948년 각기술(합기도)을 수련하고 강진, 인천에서 합기도장 개설 후 무술 저변 확대에 기여하였다.

1974년 대한민국 합기회 및 국제연맹 합기회를 창설하고 1977년 대한민국 합기회 회장에 취임하였다. 그 후 오스트리아 올림픽위원장의 초청으로 오스트리아 군사령부 및 경찰학교에서 시범을 보인 후 이들에게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1989년에는 브라질에서 문화상을 수여받아 세계적인 체육인으로 인정 받게 되었다. 또 한글의 자음과 모음을 연구하여 무술에 접목시켜 한기도, 한검도를 발표하여 한민족 무술의 우수성을 널리 알렸다.

1993년 국제합기도연맹 세계본부를 백암 가창리로 이전하여 백암을 널리 알리는데 공헌하였다.

양원모(梁元摸 1947~2001)

백암면 가창리에서 태어났으며 호는 금호(金虎)이다. 백암초등학교를 거쳐 백암중학교 재학 중 씨름을 시작하였다.

그는 중학교 때 20대 장사들과 겨룰 만큼 힘이 세고 운동신경이 발달하였는데 중학시절 체육선생님이 레슬링을 권유하여 남산공전(현 리라고등학교)에 진학하여 레슬링을 시작하였다. 고교 졸업 후 인천대학에 입학하여 국가 대표 선수로 활약하였으나 선수로서의 활동보다는 지도자로서의 역할이 더욱 돋보이게 활동하였다.

28세의 약관의 나이에 경기도 레슬링협회 창설에 주도적 역할을 하고 본 협회 전무이사로 활동하였으며 수원시에 국내 최초로 레슬링 전용체육관 설립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그리고 대한 레슬링협회 감사, 이사 등을 역임하고 1996년 아틀란타 올림픽 레슬링 총감독, 국군체육부대 총감독을 역임하였다.

그가 길러낸 선수로 하로시마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 고(故) 송성일,

1986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 김기정, 1966년 아틀란타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심권호가 있다.

그는 경기도 문화상(체육부문)수상(최연소), 국무총리 표창,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였다.

### 정구홍(鄭求弘 1952~)

백암면 용천리 출신으로 장평초교, 백암중학교, 서울의 동양공고를 졸업하고 명지대학을 졸업하였다. 고등학교 3학년 때 우연한 기회에 서울 남영동에 동신 체육관에서 복싱을 시작하였다.

선수시절인 1972년 전국체전에서 반タ급 금메달, 1973년 한, 중, 일 국제복싱대회(장충체육관)반タ급 금메달을 획득하였다.

그 후 1980년 제주도 복싱대표팀 코치를 시발점으로 지도자의 길을 걷기 시작하여 1983년 고향에 복싱 후계자를 양성하기 위해 현 용인정보산업고등학교 감독으로 부임하였다.

1986년 인도네시아 대통령배 국제 복싱대회에서 용인정보고 김학성이 동메달을 획득하면서 1987년부터 1996년까지 용인시가 경기도 체육대회에서 10연패하는데 복싱이 크게 기여하였다.

1991년 용인시청 복싱 감독으로 부임 과학적인 선수지도로 1994년 하로시마 아시아올림픽에서 이승배선수가 금메달 획득, 1996년 아틀란타 세계올림픽에 이승배가 라이트 헤비급에서 우리나라 복싱에서 유일하게 메달을 획득하여 용인복싱위상을 크게 선양하였다.

또 이를 계기로 용인체육발전을 위하여 체육회사무국을 설립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하여 용인체육발전에 기여한 바 있다.

현재 용인시 복싱감독으로 일하며 용인시 복싱연맹 부회장으로 복싱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 조우현(1959~)

장평리 강촌마을 농가에서 태어났다.

장평초교를 거쳐 백암중학교에서 씨름을 시작 서울 한영고등학교 씨름선수로 활동 단국대학교 체육학과를 졸업하였다.

대학졸업 후 해태유업아파씨름단 소속 씨름선수로 활동하다 1990년 백암중학교 씨름감독으로 후임 후진양성에 노력하였다.

그는 선수로서 제65회 전국체전(대구) 무제한급 1위를 하였으며 백암중학교 감독으로 부임 장덕제, 홍세종, 김주열등 유명선수를 길러 내었다.

### 서윤석(1966~)

가창리에서 태어나 수정초, 백암중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우연한 기회에 1990년 초 용인시 마평동에 있는 용무정에서 국궁을 접하게 되어 시간 나는 대로 국궁을 연습하다가 1997년 백암에 수양정이 설립되면서 본격적으로 훈련 하여 선수로서 활동하게 되었다.

2001년 안산에서 개최된 도민체전에서 금메달을 획득하고 도대표 선수가 되어 2005년 제86회 전국체전에 경기도 대표로 참가하여 은메달을 획득하여 백암국궁을 전국에 알리게 되었다.

현재 백암 수양정에서 사범으로 활약하며 기량함양과 국궁저변 확대에 진력하고 있다.

도움말: 수양정 회원들

### 장덕제(張德帝 1971~)

백암면 박곡리에서 출생하여 백암초등학교를 거쳐 백암중 1학년 때 씨름을 하기 시작하여 중3때 경기도 대표선수로 소년 체전에 참가 입상. 고교 시절 전국 체전에 입상하여 용인 대학교 격기과에 입학 선수생활을 하다 몸을 다쳐 선수생활을 접게 되었다.

자신이 못다 이룬 한을 이루기 위해 후배양성에 매진하여 백암중학교 씨름

부를 전국 반열에 올려 놓았다.

### 김주열(金周烈 1971~)

근삼리에서 태어나 백암초교시절 육상선수로 활약하다 백암 중에 입학하여 조우현 감독의 권유로 씨름을 시작하였다.

학생시절 씨름선수로서 큰 명성은 없었으나 1991년 양지, 한터, 제일초등학교에서 지도자 생활을 시작하여 용인 백옥쌀 팀선수를 길러 내었다.

현재 전국 씨름 심판이며 백암초등학교 감독으로 후배 양성에 진력하고 있다.

### 원종수(元鍾秀 1976~)

여주 강촌면에서 태어나 여주초등학교시절 씨름에 입문하여 졸업 후 씨름부가 있는 백암중학교로 씨름 유학을 왔다

원선수가 활동하던 시기에 백암중학교가 경기도 단체전에서 대회 1등하는 등 백암씨름의 명성을 날리었다는 하였다.

중학교 졸업 후 용인지역에 씨름부가 있는 고등학교가 없는 관계로 안양의 양명고등학교를 거쳐 경기대학교 체육학과를 졸업하였다.

졸업 후 실업팀 해태유업에서 2년간 선수 생활을 하며 대통령배 전국 씨름 대회에서 1등을 한바 있으며 프로팀인 신창건설에서 5년간 활동하다 현재 개인 사업을 하고 있다

백암중학교 출신으로 유일한 프로팀 선수였다.

### 조은선(趙恩線 1981~)

가창리에서 태어나 백암초등학교 4학년 때 가정 사정으로 서울 논현 초등학교로 전학하여 졸업 후 백암중학교를 다니던 중 부모의 권유로 중 3때 골프에 입문 신갈고등학교로 진학하여 선수 생활을 시작하였다.

고등학교 3학년 때 명지대학 총장 배(양지아시아나CC)에서 우승을 계기로  
맹 연습으로 2004년 8월(가평 씨니힐CC)에 LPGA수로 등재되었다.

2006년 그랜드투어 4차전(청주 그랜드CC)에서 2위 입상하였으며 현재 우  
리나라 최고여자 골퍼가 되기 위하여 맹훈련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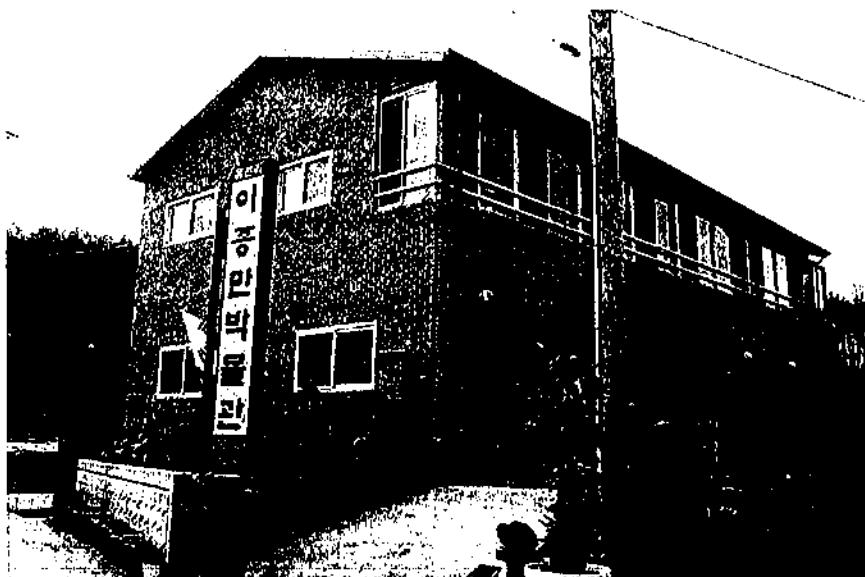
## 제3장 문화예술



### 제1절 백암의 문화시설



이종만박물관



〈사진6-59〉 용천리 이종만 박  
물관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세상. 우리가 인식하든, 못 하든 세상은 지금도 변하고 있다. 언제부턴가 우리 뇌리에서 잊혀져, 까마득한 과거의 추억으로만 남아



〈사진6-60〉 이종만 박물관  
내부

물관」이다. 백암면 용천리 613-3번지에 자리잡고 있는 이 박물관은 백암 장터에서 부동산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 이종만씨가 40여년 동안 전국을 여행하며 취미로 모은 각종 생활용품들을 전시해 놓은 일종의 생활사 박물관이다.

아주 오래된 물품을 전시해 놓은 것은 아니고 약 100여년 전에서부터 20-30년 전까지 우리 생활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생활용품들로서 지금은 쉽게 찾아볼 수 없는 것들이다. 초창기 전화기를 비롯하여 놋주전자, 전축, 수석, 제기, 주판, 흑백TV, 도트 프린터 등 약 1,000여점이 전시되어 있다.

1970년대 이후 우리 사회가 근대화되고 새로운 과학문명이 발달하면서 보다 편리하고 손쉬운 생활용품들이 쏟아져 나오자 셀 자리를 잃고 내버려진 물건들이 새삼스럽게 치장을 하고 앉아 찾아오는 사람들로 하여금 지난날을 회상하게 한다. 최근 MBC드라마 촬영장을 찾는 사람이 부쩍 늘어나면서 이곳을 찾아오는 사람도 많아졌다고 한다.

박물관장인 이종만씨는 원래 죽산에서 태어나 군 제대후 이곳에 정착하여 잡화를 판매하는 조그만 가게를 운영하기 시작하여 지금은 부동산사무실을 20여년 동안 경영하고 있다. 이종만씨는 남달리 의기심이 강해 소방대에서 30여년 동안 봉사활동을 해왔으며 시장번영회 활동을 통해 시장 활성화를 위한 노력도 꾸준히 해왔다. 특히 백암수석회라는 모임을 조직하여 각 지방을 둘며 수석과 골동품 수집하여 오늘날 박물관을 설립하기에 이른 것이다.

오렌지색 공중전화통, 빼빼, 주판, 만화책, 할아버지 지팡이, 토큰, 미싱, 벽시계, 절구… 분명히 우리 기억 속에는 존재하지만,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는 쉽게 찾아볼 수 없는 것들이다. 동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에게는 아련한 추억과 향

버린 것들이 있다. 과거에는 신기하고 요긴했던 것들이 지금은 시시하고 쓸모없는 것이 되기도 했다. 어느 순간 우리 주변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 가는 것들을 좋으면서 그 동안 우리가 너무 쉽게 잊고 산 것은 아닌지 자신을 되돌아보게 하는 박물관이 있다.

백암면 용천리에 자리잡고 있는 MBC드라마를 찾아 올라가다 보면 첫 번째 실개천 다리를 건너서 좌측 길가에 아담하게 서 있는 박물관 하나를 볼 수 있는데, 바로 「이종만박

수를 느끼게 하는 것들. 어쩌다 우연히 마주치게 되면 웬자 모를 따스함이 가슴속에 전해오는 것들이다.

모든 사라지는 것들은 뒤에 여백을 남긴다고 말한 고정희 시인의 시집 제목처럼, 사라지는 모든 것들은 세월의 변화 속에서 사라질 수밖에 없는 운명이지만, 훗날엔 더욱 깊은 여운을 남긴다. 이곳에서 보는 옛 전화기, 우편함, 이코노텔레비전이 정겹게 느껴지는 것은 누구나 마음속에 한 자락 여운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 제2절 백암의 예술인

### 경기소리 명창 박상옥

2000년 7월 1일 서울시 중요무형문화재 제21호 경기소리 휘모리잡가로 인간문화재 반열에 오른 박상옥(朴相玉)씨는 가창리 175번지 가곡마을에서 태어났다. 어릴적 유성기에서 흘러나오는 민요소리를 듣고 무작정 따라하다가 좋아서 그 소리를 배웠던 어린 소년 박상옥씨가 이제 소리명창으로 우뚝 그 이름을 서울시에 새긴 것이다.

산수가 수려한 곳에서 태어난 텃인지 어려서부터 농악을 좋아했고 성격 또한 명랑하였으며 들이나 산에서 팽과리, 깡통 두드리기를 학교 가는 것보다 좋아해 학교 수업을 수없이 빼먹어 선생님께 좋아리 맞기도 했다. 하지만 농사꾼들이 논밭에서 부르는 농요를 듣다보니 그 소리가 좋아 따라 부르게 되고 그 소리에 빠져 인근에서 소년명창이 났다는 소문이 자자했다.

처음 경기민요계에 입문하게 된 것은 그의 나이 서른 가까이 되어 KBS 민요백일장에 참가하면서부터이다. 민요백일장에서 주말장원을 하고 이어서 월말장원까지 하자 당시 심사위원을 맡고 있던 안비취 선생이 남자 소리꾼이 드



〈사진6-61〉박상옥

문데 저런 성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정식으로 소리를 배운다면 명창이 될 것이라고 권유하자 옆에 있던 김득수 선생이 남도창에도 재주가 있으니까 남도창을 또한 권유했다 한다.

그러나 박상옥은 자신이 경기도 용인이 고향이고, 남도소리는 정서에 맞지 않을뿐 아니라 소화하기도 어려우니 경기소리를 배웠으면 한다고 말해 김득수 선생이 박 명창의 손을 손수 잡고 이창배 선생의 학원에 데리고 가서 소리 가르치기를 청했다고 한다.

고기가 물을 만난듯이 박 명창은 스승을 만나자 그 실력이 일취월장 했다. 여기에서 가사, 시조, 경기창, 서도창 전반을 배운 박상옥은 10세 때부터 소리를 하여 목구성이 오른데다 좋은 선생 밑에서 기초를 단단히 닦아 홀륭한 기량을 가진 명창으로 성장하였고, 1976년 전국 민요경창대회에서 1등상을 받는 영광을 안았다.

경창대회에서 그 소리를 인정받은 박상옥은 자신의 첫 음반을 취입하게 되었다. 특히 경서도민요 음반(77년), 뿌리깊은나무 음반(83년) 등은 박상옥의 소리를 널리 알려 주는 계기가 되어 이름을 전국에 떨쳤다. 이어 박상옥은 독집음반(94년), 선소리산타령 및 경기 휘모리잡가 독집음반(98년) 등을 출판하였다.

1996년에 중요무형문화재 제19호 선소리산타령 전수교육보조자로 지정된 박상옥은 민속놀이 재현에도 탁월함을 보여 97년 수표교 다리밟기를 연출하였으며, 98년에 전국 민속예술경연대회 서울시 대표로 경복궁 지경다지기를 재현하여 우수상을 수상하였다.

현재 박상옥씨는 경기소리 휘모리잡가 11곡의 전승, 보존에 역점을 두고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사라져간 휘모리잡가를 찾아내는 일에도 열심이다.

경기소리 휘모리잡가 계보는 추신경 - 조기준 - 박춘청 - 최경식 - 이창배 - 박상옥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휘모리 잡가 11곡은 만학청봉, 병정타령, 곰보타령, 육칠월, 생매잡아, 기생타령, 맹꽁이타령, 바위타령, 한잔부어라, 장끼타령 등이 있다.

## 경기민요 명창 최근순

1997년 제4회 경기국악제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하고 2006년에는 KBS 한국방송 대상 「국악인상」을 수상한 경기소리 명창 최근순씨는 백암면 근창리가 고향이다. 중요무형문화재 제57호(경기민요) 기능 보유자 목계월(墨桂月) 선생의 제자로, 현재 경기도립국악단에 재직하면서 국악과 양악을 접목시켜 국악의 대중화를 위해 앞장서고 있는 인물이다.

최근순 명창의 폭발적인 가창력으로 듣는 유산가(遊山歌)는 언제나 시원하다. 비단 유산가 뿐 아니고, 경기민요 창(唱)들이 또한 그러하다. 어린 시절 전통무용을 익히다가 몸에 자연스럽게 배운 노래 소리에 이끌려 본격적으로 경기소리를 시작하게 된 최근순 명창은 경기소리의 목청으로는 보기 드문 구성진 소리의 소유자이다. 또한 민요계에서는 최근순의 소리를 스승 목계월의 소리와 가장 닮은 소리라고 입을 모으기도 한다. 그렇다고 최근순의 소리가 풍부한 성량이나 힘이 실려 있다는 이유만으로 인정을 받는 것은 아니다. 그의 소리 속에는 색깔의 명암(明暗)이 분명하고 자연스런 곡선의 움직임이 유연하다.

최근순은 어려서부터 예능과 기예가 뛰어나 주위의 많은 사람들로부터 커서 훌륭한 예술인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자랐다. 할머니가 듣는 유성기의 가락에 심취해 따라 부르기도 했으며, 백암장이나 안성장에 찾아오는 남사당패의 소리가 좋아 부모님의 손을 잡고 구경을 가기도 했다. 특히 백암은 농악이 마을마다 용성해서 김매기나 벽중 때 동네마다 풍물이 연희되었는데 그 가락과 소리가 좋아 흥얼거리며 따라 부르고 다녔다.

최근순이 처음 예능을 시작한 것은 원래 무용이었다. 어느날 목계월 선생의 지방 공연에 따라가 춤을 추게 되었는데, 공연이 끝나고 커튼 콜 때 계속 앵콜이 쏟아지자 목계월 선생이 최근순에게 소리 한 번 해보라 하여 처음 무대에서 본 것이 계기가 되어 경기소리를 시작하게 되었다. 춤의 반주음악 대부분이 경기민요였기 때문에 그것에 익숙해 있던 터였고 목계월 선생이나 김옥심(金玉心) 선생이 위에서 지르는 맑은 소리가 너무도 좋아서 바로 춤을 접고 본격적으로 경기소리를 배우기 시작했던 것이다.



〈사진-6-2〉 최근순



최근순은 북계월 선생을 사사하고 중요무형문화재 제57호(경기민요) 기능  
이수자가 된 뒤 그 동안의 훈련과정이 각고의 시간이었다는 것을 증명이나 하  
듯, 전국대회의 급작한 상들을 휩쓸다시피 했다. 1994년 제주에서 열린 제11  
회 「한라 문화제」 「전국 민요경창대회」에서의 대상을 시작으로, 다음해에는  
인천에서 열린 「전국 경서도 경창대회」에서의 대상, 같은 해 한국국악협회가  
주최한 제3회 「전국 민요경창대회」 명창부의 최우수상, 그리고 1997년 12월  
제4회 「경기 국악제」에서 유산가(遊山歌)와 선유가(船遊歌)로 대통령상을  
받았으며 2006년에는 KBS 한국방송 대상 「국악인상」을 수상했다.

개인 발표회 여러 차례 가졌다. 1998년에 제1회 발표회 때에는 경기소리와  
경기굿이 중심이었고, 2회 때에는 동(東)·서양(西洋) 음악의 새로운 조화를  
시험해 본 무대였으며, 제3회 발표회에서는 경기의 12잡가를 새로운 극(劇)  
형식으로 꾸몄다. 그리고 2002년 제4회 때에는 사계절의 변화에 따른 세시풍  
속과 경기소리의 조화를 새로운 형식으로 시도하기도 했다. 2003년 4월에는  
12잡가 완창 음반을 냈고 그것을 기념하여 같은 해 5월 국립극장에서 발표회  
도 가졌다.

뿐만 아니라 최근순은 경기 토속(-俗)민요에도 관심을 보여 노동요, 부녀  
요, 어희요(語戲謔), 유희요, 정가(情歌), 타령, 상여소리 등을 발굴하여 무대  
화시키는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 이천 농 매는 소리, 안성 모심기 소리, 백암  
상여소리 등이 대표적인 경우다. 특히 용인에 살면서 백암의 상여소리를 항상  
접했는데, 상여가 나갈 때 나오는 소리, 메기고 받고 하는 그 소리가 무척 구성  
지고 사람의 심금을 울리는 소리였다고 한다.

국악의 대중화에 앞장서고 있는 최근순은 「리듬앙상블」이라는 공연단체를  
결성하여 전자 바이올린, 베이스 기타, 드럼 등 서양악기와 경기민요가 만나는  
퓨전콘서트를 매년 지역 순회공연 형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또 이태리, 독일,  
프랑스 등 유럽과 동남아 및 일본, 중국 등 수많은 해외공연을 통해 우리 소리  
의 독자성과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있으며, 그가 부르는 경기소리가 남도의 판  
소리처럼 세계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되는 것이 평생소원이라고 한다.

퓨전콘서트 및 예술단 정식 공연을 포함하여 최근순이 1년에 무대에 서는  
횟수는 250여회에 이르며, 본인이 부를 수 있는 우리 소리의 레퍼토리만도  
200여곡이다. 바로 아래 동생인 최은호도 1998년 제5회 경기국악제에서 대  
통령상을 수상하였으며 경기도립국악단에서 함께 경기민요를 하고 있다.

## 가야금 산조의 명인 김정숙

김정숙은 중요무형문화재 제23호 김윤덕류 가야금산조의 유파를 형성하고 있는 고(故) 김윤덕 선생의 막내딸로, 균창리에 살고 있다. 1997년 백암에 정착하여 지금까지 10여 년 동안 살면서 김윤덕류 가야금산조 이수자로서 다양한 국악 활동을 해오고 있다. 특히 아버지의 호(號)를 따서 녹야회(鹿野會)를 조직하고 녹야국악관현악단을 결성하여 왕성한 활동을 펼치며 우리 지역의 전통문화 발전에 기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축된 우리나라 국악계에 신선한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녹야회는 김윤덕 선생의 음악적 업적을 기리며 그분의 독특한 樂風을 계승 발전시키고자 김정숙을 비롯한 후학들이 결성한 단체이다. 김윤덕 선생이 생전에 결성했던 「금우회」를 모태로 하고 있으며 선생의 업적을 기리며 전통예술의 발전방향을 모색해 나가는 다채로운 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녹야국악관현악단은 녹야회 회원들을 주축으로하여 2002년 결성된 국악 연주단체로, 해마다 정기공연을 용인문예회관이나 수지여성회관, 또는 경기도예술의전당에서 열어 왔다. 특히 기획공연과 특별공연을 국립국악원 등 큰 무대에서 비정기적으로 열면서 그 기량과 실력을 널리 인정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활동영역도 전국 단위로 크게 넓혀가고 있다.

김정숙은 1960년 4월 4일 서울에서 중요무형문화재 제23호 녹야 김윤덕 선생의 막내로 태어나 아버지에게 가야금을 배우며 자랐다. 창덕여중을 거쳐 홍대 부속여고를 졸업하고 1983년 한양대 국악과에서 가야금을 전공하였다. 1987년 중요무형문화재 제23호 김윤덕류 가야금 산조 첫 이수자가 되었으며, 1990년 선친의 금우회를 이어받아 녹야 금우회를 발족하여 지금까지 100여 회의 공연활동을 펼치며 국악 발전에 꾸준히 노력해 오고 있다.

1998년 한양대 교육대학원, 2006년 성균관대 국정관리대학원을 졸업하였고, 지금까지 10개교의 종고등학교에 출강하였으며 가야금연구소도 운영하고 있다.

1999년 용인예술단(현재 용인국악관현악단)을 창단하여 초대 단장을 맡았고, 2000년에는 한양대 동문 가야금 연주단 악장을 지냈으며, 같은 해 한양대 국악과 개교 30주년 동문음악회에서 김윤덕류 가야금 산조를 독주하였다.

2001년에는 국립국악원에서 김윤덕류 가야금 산조 독주회를 개최하며 녹아 선생의 친필 악보집 「김윤덕류 산조와 향제풍류」도 발간하였다. 2002년에는 경기문화재단에서 차세대 명인 초청공연에 김윤덕류 가야금산조를 바이올린과 퓨전 협주하였으며 2002년 8월부터 이후 지금까지 “경기도민을 위한 녹아 국악캠프”도 매년 진행해 오고 있다.

2002년 12월 1일 창단된 녹아국악관현악단은 지금까지 여섯 차례의 정기 공연을 가져오고 있으며 해마다 50여회 이상의 기획공연과 특별공연을 펼치고 있다. 김정숙은 현재 한양대, 중앙대, 국악예고 등에 출강하고 있다.

김윤덕(金允德, 1916~1978) 선생은 전북 정읍에서 태어나 1930년 입암보통학교를 졸업하고 정읍농업중학교를 중퇴하였다. 1931년 정자선에게 양금을, 1932년 김광석에게 가야금을, 1933년 김용근에게 거문고를 배웠다. 그 뒤 1947년 정남희에게 가야금산조를, 1948년 한갑득에게 거문고산조를 전수받았다. 1945년 대한국악원 국극사의 단원으로 활동하였고 1950~1961년에는 국립국악원 국악사 및 국악사양성소 강사를 겸직하였다.

그 밖에도 1961년부터 서울대학교, 숙명여고, 서울국악예술학교 등에 재직하면서 국내 연주활동뿐만 아니라 일본·멕시코·유럽·미국 등지에서 해외 공연을 가졌다. 가야금과 거문고 외에도 양금·설장고 등 많은 악기에 고루 능했고 가락을 기록할 때는 한글 문자보다 양악의 오선보를 병용했다.

그의 가락은 형식과 구성에 있어 우조, 계면조, 평조의 구분이 확실하고 그 흐름이 남성적이었으며 단모리 가락의 묘법이 뛰어나고 미세한 삼라만상의 감정을 섬세하게 표현했던 것이 특징이었다. 스승의 전통을 이어 받아 ‘김윤덕류 가야금산조’와 ‘김윤덕류 거문고산조’를 만들었으며, 1968년에는 중요 무형문화재 제23호 가야금산조 예능보유자로 인정되었다.

김정숙은 김윤덕 선생의 6남매(1남 5녀) 중 막내이다.

### 근대 서양화가 심형구

심형구(沈亨求, 1908~1962)는 용천리의 지주 집안 출생이고 호는 운봉이다. 근대화가 운보 김기창 선생의 수제자이며 참봉과 경기도 광주군수를 지낸 심종협(沈鍾協)의 차남이다. 할아버지 심원용(沈遠用)은 교회 장로였다. 어려

서부터 그림에 남다른 소질을 인정받았으나 집안의 반대로 갈등을 겪다가 형 심원구의 도움으로 화가로 성장할 수 있었다. 소학교 때 서울로 옮겨 경기 제2고등보통학교(지금의 경복중학교)를 다녔다.

중학교 졸업 후 서양화 전공을 위해 일본으로 건너가 1931년 일본 최고의 명문대학인 동경미술학교에 입학, 1936년에 졸업하였다. 동경미술학교 재학 중인 1935년부터 조선미술전람회(약칭 鮑展)에 출품하여 특선을 거듭하였고 이어서 제16회 조선미술전람회 총독상을 받은 이래 여러 번 특선을 하였으며 1940년 추천작가가 되었다.

또한 이 1940년에는 친일단체인 국민총력조선연맹 문화부 문화위원, 1941년부터는 추천 및 참여작가가 되었다. 그 무렵 이화여자고등학교에서 미술교사를 지냈다. 또한 1941년에는 친일 미술가 단체인 조선미술가협회의 서양화부 이사 등으로 활동하면서 회화봉공(繪畫奉公)을 위해서는 군국주의에 동조하는 삽화나 포스터 제작에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세웠다.

심형구의 군국주의에 동조하는 대표적인 친일미술 활동은 한국화가와 일본화가가 함께한 친일미술모임인 단광회(丹光會-1943)에 참여한 일이다. 그리고 심형구가 자행한 친일활동의 백미는 황도학회의 결성 발기인에 낀 사실이다. 황도학회는 조선인을 황국신민화(皇國臣民化)하려는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황도교육을 목적으로 결성된 단체이다. 이처럼 친일파 화가의 선봉장이 되기까지 심형구의 행적은 도쿄미술학교 출신의 실력파답게 화려하기 그지없다.

8·15광복 이후에는 이화여자대학에 미술과를 창설하여 초대 교수 및 학과장이 되었고, 1948년에서 다음해 미국으로 건너갈 때까지 이화여자대학교 예술대학장을 역임하기도 하였다. 부인인 성악가 김자경과 함께 미국에서 9년(1949~58)간 머무르는 동안 일리노이주 아델피(Adelphi) 대학 회화과 초청 교수로 재직하면서 많은 작품을 남겼으나 미국생활로 인해 화단에 그리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였다.

1958년에 귀국하여 이화여자대학교 미술대학에 교수로 복직하고 동 대학 박물관장도 겸하면서 국전 심사위원, 국전 초대작가 등으로 활약하였다. 이렇



〈사진6-63〉 심형구

게 새로운 작품 의욕을 보이다가 1962년 8월 동해안 화진포 해수욕장에서 수영중에 심장마비로 익사하였다.

1977년 문화화랑에서 미망인 김자경의 주선으로 심형구 회고전을 열었다. 그의 작품경향은 사실적 자연주의로 일관하면서 인상파적인 시각을 근저로 한 사실적이면서도 서정적 분위기를 풍기며 인물화와 풍경화를 주로 그렸다. 대표작으로는 「수변(水邊)」(1938), 「향원정」, 「포우즈」(1939), 「피리소리」(1959), 「학교있는 풍경」 등이 있다.

### 소프라노 김자경



〈사진6-64〉 김자경

식민지의 척박한 땅에서 쌍튼 예술혼을 불굴의 정신으로 갈고 닦아 한국 오페라의 꽃을 활짝 피게 한 성악가 김자경(金慈璟, 1917~1999)은 1917년 개성에서 태어났으며, 1940년 용인출신의 서양화가 심형구 화백과 결혼을 함으로써 용인과 인연을 맺게 되었다.

그의 오페라 인생은, 1948년 1월 한국 최초의 오페라 「춘희」(라트라비아타)에서 바울레타 역을 공연한 것으로 시작되어 1999년 8월 「라트라비아타」 공연을 끝으로

반세기 동안 계속되었다. 한번 공연하면 억대 적자를 각오해야 하는 악조건 속에서 56회 정기공연과 600여회 소극장 공연을 강행해 온 그는 한국 오페라 역사를 창조해 온 당당한 주역이었다.

1917년 9월 9일 경기도 개성에서 부친 김영환 목사와 모친 백열쇠의 외동 딸로 태어났다. 1935년 함경남도 원산 루씨여고를 졸업한 후 이화여자전문학교 음악과에 입학, 피아노와 성악을 전공한다. 5년만에 기악과 성악, 두 전공을 마치면서 전체 수석졸업이라는 영광도 차지하였다.

1940년 이화여전을 졸업한 후에 이화여고 교사로 부임한 그는 같은 학교 미술교사였던 심형구 화백과 결혼한다. 주위에서는 기혼자이면서 자식까지 있는 심 화백과의 결혼을 만류했지만 그는 예술활동을 존중해 주고 독려해 주는 심 화백과의 결혼을 결심한 것이다.

1948년 명동 옛 국립극장 무대에서 오페라 「춘희」의 프리미돈나를 열연한

후, 그해 8월에 도미하여 줄리어드 음악학교에 입학한다. 1950년 5월 5일에는 한국인 최초로 카네기홀에서 독창회를 가졌다. 프로그램에는 한복입은 사진을 신고, 무대에서는 한국가곡과 민요를 불렀다.

1958년 김활란 총장의 권유로 모교 음악대학 교수로 부임하여 1983년 정년퇴임하기까지 25년 동안 이화여대 강단에서 교육자로 헌신하면서 그 자신이 포기했던 세계적인 성악가의 꿈을 제자들이 이룰 수 있도록 지도했다. 소프라노 이규도 남덕우 이연화 송광선, 메조소프라노 김학남 같은 유명 성악가들이 그의 제자이다.

1962년, 모교 미술대학에서 재직하던 남편이 사망하자 좌절하지 않고 오페라단 창단이라는 가시밭길을 걸 없이 들어서게 되었다. 1968년 한국 최초의 민간 오페라단인 김자경 오페라단을 설립하여 수많은 후진을 육성 배출한 교육자로 한국 오페라계의 산증인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1950년 한국인으로는 처음으로 미국 뉴욕의 카네기홀에서 독창회를 가진 이후 56회의 정기공연, 수십 회의 독창회, 600여 회의 소극장 공연, 동남아시아·유럽을 비롯한 각종 해외 순회연주 등을 통해 한국 오페라계의 발전은 물론, 한국 문화예술 수준을 해외에 알리는 데도 주도적 역할을 하였다.

주요 작품으로 「춘희」「리골레토」「세빌리아의 이발사」를 비롯해 가곡 「춘향전」「심청전」 등이 있고, 1997년 자서전 「눈으로 듣는 삶의 노래」를 출간하였다.

### 정크아트 예술가 황현철

버려진 고철이나 폐품을 이용하여 홀륭한 예술작품을 만드는 정크아트 예술인이 있다. 경기도 용인시 백암면 고안리 산 43번지에 사는 황현철씨가 바로 그 주인공이다. 차량 한대가 겨우 지나갈 수 있는 구불구불 산길을 올라가다 보면 산자락 끝에 폐품조각공원인 '백암정크아트하우스'가 나타난다. 곳곳에 붉은 흙바닥이 드러나 있는 등 아직은 조각공원나움을 많이 느낄 수 없지만 이곳에는 오토바이 헬멧, 자



〈사진6-65〉황현철

전거 바퀴, 경운기 라이트 등 갖가지 고철로 만든 50여점의 독특한 조형물이 여기저기 서 있다. 오토바이 의자가 소의 얼굴이 되고, 헬멧이 로봇의 머리가 되고, 경운기 라이트가 공룡의 입으로 변신한 것은 물론 자전거 바퀴가 솟대로 서 있다. 산업사회의 산물인 고철로 현대인들이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의미있는 작품을 만들어 보고 싶다는 황현철(37)씨가 각종 폐품, 고철을 모아 조이고 불이고 두드려 만든 조형예술 작품들이다. 쓰레기, 낫, 삽, 톱, 깡통, 컴퓨터 등 일상적인 모든 대상을 예술품으로 승화시키는 작업(정크아트)를 하고 있는 것이다.

포크레인 작업 도중 쓰레기가 예술품에 도움이 될 것 같다는 느낌이 오면 가져오기도 하지만 쉬는 날이면 고철이나 못 쓰는 물건을 사려 고물상을 기웃거리는 것도 일상이 돼 버렸다. 그는 작가가 작품을 원한다면 어떠한 조건에서든 자유로운 사상과 도구와 조건을 뛰어 넘은 창의적인 언어를 가져야 한다고 말한다.

먹고살기 위해 낮에는 굴착기 기사로 일하며 틈이 있을 때마다 이곳에서 작품활동을 하고 있다는 황씨는 예술작품은 물감으로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며 쓸모없는 고철도 혼을 불어 넣으면 곧 예술작품이 된다고 강조한다. 어려서부터 무엇인가 만들기를 좋아했다는 황씨는 1995년부터 이같이 폐품이나 쓰레기, 잡동사니를 이용해서 작품을 만드는 정크아트(Junk Art)에 관심을 갖고 본격적인 작품활동을 시작했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상태에서 어머니를 모시고 생계를 꾸려가며 생소한 정크아트를 배우는 것이 처음에는 쉽지만은 않았다고 한다. 대학을 다니지 않은 것은 물론 정규 미술교육도 받지 않은 황씨는 관련 서적을 뒤지고 해외 유명작가들의 작품집을 보며 그동안 혼자 정크아트에 대한 공부를 했다. 이런 노력끝에 지금까지 각종 미술대전에 출품, 10여차례 입상도 하고 지난 1998년에는 용인문화원에서 첫 개인전까지 열었던 황씨의 꿈은 정크아트 전문미술관을 만드는 것이다. 이 꿈을 실현하기 위해 황씨는 아버지가 생존해 있을 때 정성들여 가꾸어 온 포도밭 1천800여평에 지난 2002년부터 조각공원 백암정크아트하우스를 조성하기 시작했다. 황씨는 미완(未完)의 이 조각공원을 언제까지 완성하겠다는 목표를 정해두지는 않았지만 시간이 나는 대로 조금씩 다듬고 작품을 만들어 전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조각공원으로 꾸밀 계획이다. 예술세계와 학교생활이 맞지 않아 대학진학도 포기했다고 하는 황현철씨는 예술에 정해진 틀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더욱 노력해 완성도 높은 자신만의 독창적인 작품세계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자신있게 말한다.

이곳이 아직은 완성된 작품공간이 될 수는 없지만 차곡차곡 열정을 쌓아 자신만의 미술관을 만들게 되기를 기대해 본다.

### 한국화가 운정 정완섭(云丁 鄭完燮)

1922년 4월 16일 장평리에서 정성근 배씨의 8남매 중 3남으로 태어났다. 본관은 해주이다. 정완섭이 5살 되던 1927년 서울 인사동으로 이사를 하고 다음해에 수송보통학교에 입학하였는데 남다른 재능을 나타내어 4학년 때 이동 미술경진대회에서 입상을 하였다. 17세에 배재중학교를 졸업하고 이당 김은호(以堂 金殷鎬) 선생 문하생이 되어 정식으로 전통화법(傳統畫法)을 배우기 시작하였다. 이당 화백의 약정현화실(約青軒畫室) 입문 몇 달 후인 10월에 화신백화점 화랑에서 개최된 동문 후소회전(後素會展)(제2회)에 처음으로 「금붕어」를 출품하였다. 이때 쓴 초호(初號)는 「우송(又松)」이었다.

이당선생에게 사사하기 시작한지 약 1년만에(1940) 당시 최고 권위의 신인 등용문이던 조선미술전람회(약칭 鮮展)에 출품한 인물화「化粧」이 당당 입선함으로써 크게 용기를 얻었고 가을에 열린 제3회 후소회 동문전에 「풍경」을 출품하였다. 이때엔 「이암(以庵)」이란 호를 썼다.

19세인 1941년 제4회 소후회전에 「少憩」를 출품하면서 이때부터 아호(雅號)를 운정(芸亭)으로 확정한다. 미술 수업차 일본에 건너가 약 10개월간 체류한 후 1942년 제21회 선전(鮮展)과 다음해에 열린 제22회 선전(鮮展)에도 입선하였다.

1945년 일제 패망과 함께 감격의 민족 해방을 맞이하여 새 역사의 조선문화건설중앙협의회(朝鮮文化建設中央協議會) 산하 조선미술건설본부(朝鮮美術建設本部) 등록회원으로 참가하였으나 이때부터 1950대 중반까지 작품활동 기록이 없다. 1949년부터 시작된 대한민국미술전람회(國展)에도 여러 원



〈사진6-66〉 정완섭

인으로 외면하였다. 다만 1950년 국민방위군에 관계하다가 부산에서 6.25전권기를 보내고 1953년 서울로 돌아왔다고 한다.

1954년 문영공사(文映公社) 발행 「동아위인열전(東亞偉人略傳)」의 인물화를 그렸으며 35세이던 1957년에 주위의 권유로 제6회 국전에 「귀로(歸路)」를 출품했다가 입선에 그치자 그 다음해부터 국전(國展)을 외면할 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미술단체와도 관계를 갖지 않으며 야인화가 생활로 일관하였다.

그러나 10여년 후인 1966년 44세에 인사동에 치류산관화숙(峙流山館畫塾)을 개설하고 후진을 지도하기 시작하였으며 1971년 은사 이당 김은호 화백의 팔순 기념 소품전과 제8회 후소회에는 작품을 출품하였다. 이어 1974년에는 주위 화단 동료들의 권유로 백양회전(白陽會展)에 참가하였고 세종대왕 기념관을 위한 역사기록화 대작(大作) 「李滿住征伐圖」를 제작하였다. 다음해에도 「鑄字所圖」를 제작하였는데 현재 영릉 세종전(世宗殿)에 소장되어 있다.

1976년 동경 오원회전(五元會展)에 참가하였으며 조형화랑 기획 동양화증진10인초대전에 출품하였다. 또 같은 해 신문회관 화랑에서 처음으로 개인전을 가졌는데, 이때 치류산관하숙(峙流山館畫塾) 문하생전도 함께 열었다. 이 때부터 운정(云丁)이란 호를 쓰기 시작했다.

1978년 55세 때 수호여사대(首都女師大)(현 세종대) 동양화 실기강사로 출강하였으며 자유중국 타이페이에서 개최된 한중일 연합회전(聯合畫展)에



<사진6-67> 정완섭 작품

참가하였다. 같은 해 견지화장(堅志畫廊)에서 제2회 개인전을 열었는데 다음 해인 1978년(56세) 뇌일혈로 타계함으로써 마지막 개인전이 되고 말았다. 묘소는 시흥시 수암면 부곡리 선영에 있다.

### 한국화가 인봉 권기옥

백암면 박곡리 산3번지에서 상촌식품을 운영하는 권기옥(權琪玉) 선생은 우리나라 화단에 굵은 족적을 남긴 운정(云丁) 정완섭(鄭完燮)과 운보(雲甫) 김기창(金基昶) 선생을 사사한 한국화가이다. 서울의 부유한 사대부 집안에서 태어난 권기옥은 1950년 서울사범학교를 다니면서 대한민국 국전에 입선할 정도로 뛰어난 실력을 보여왔다. 1968년 운정 정완섭 선생 문하에 입문하여 한국화의 기량을 한층 쌓아올린 권기옥은 운정 작고 후 선생이 운영하던 화실을 약청헌 인수하여 소운회를 결성하고 지금까지 동인 모임을 운영해 오고 있다. 1980년에는 덕수궁미술관에서 열린 목우회에 입선하였고, 1981년 대한민국불교미술대전 한국화 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하고 2년 후에는 같은 대전에서 사군자 부문 대상을 수상하는 저력을 발휘하기도 했다. 1985년부터 동아미술제에서 특선과 입선을 거듭하였고 1986년에는 후소회 창립 50주년을 기념하여 한·중작가 초대전을 덕수궁 현대미술관에서 열기도 하였다. 1993년에는 한·중교류문인화 북경초대전에 참여하였으며 1996년에는 후소회 창립 60주년 기념전을 열기도 했다. 스승인 운정 정완섭 선생의 고향인 용인시 백암면에 정착하여 살고 있다는 사실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는 권기옥 선생은 용인지역에서도 왕성한 활동을 해오고 있다. 1997년에는 용인시 문화상(문화예술부문)을 수상하였으며 나혜석미술초대전 및 경기미술대전 초대전, 용인중견작가 10인 10색전 등 다양한 활동을 해 오고 있다. 2007년에는 「소운회전」을 운정 선생의 고향인 용인에서 개최하기로 하는 등 운정 선생에 대한 애정이 각별함을 느낄 수 있다.



〈사진6-68〉권기옥



〈사진6-69〉권기옥 작품

### 제3절 백암농악과 상쇠 차용성



〈사진6-70〉상쇠 차용성

일반적으로 농악이라 하면 쇠, 정, 장고, 북 등의 악기들을 사용하여 판을 구성하고, 춤을 추거나 놀 이를 베푸는 종체적 연희형태를 말하는데, 관객과 잘 어우러져 신명나게 놀 수 있는 공동체적 판의 구성이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농악이라는 명칭 외에도 굿, 매구, 두레, 풍장, 풍물 등의 다채로운 용어가 있으나, 농악이라는 표현은 일제 강점기에 조선총독부가 처음 사용한 말로, 우리의 전통문화를 말살하기 위해 농업장려의 목적에 한해서만 이를 혜용하다보니 오늘날에 이르러 민속학계의 학술용 어로 고착화 되고 말았다.

또한 모든 지방에 걸쳐 일반적으로 ‘굿친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굿의 의미는 원래 ‘모인다’라는 뜻이 있다. 모여서 공동체 내의 모든 일을 의논하고 풀어가며, 공동체적 염원을 집단적으로 기원하여 집단적 신命으로 승화시켜 새로운 삶의 결의

를 다지는 일련의 과정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개념이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의미가 왜전되어 자칫 무속에서의 신앙적 의식만을 가리키는 경향이 있다.

용인에 전승되고 있는 유일한 웃나리 풍물인 백암농악은 다른 지역의 농악과는 다른 독특한 관계와 양식을 갖추고 있다. 백암지역에 오래 전부터 전승되어 오던 풍물놀이가 50~60년대에 이르러 각 지방을 떠돌며 굿판을 벌여 온 남사당패의 영향을 받으면서 한층 세련되고 화려한 기교를 내세우는 독자적인 풍물 양식으로 발달한 것이다.

그렇지만 백암농악과 유사한 지역 환경과 전승과정을 거쳐 온 안성 및 평택 농악은 이미 국가의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전국적인 문화상품으로 널리 알려져 있으나 백암농악은 아직 문화재적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무관심 속에 그 맥이 끊길지도 모르는 위급한 상황에 처해

있다. 최근 백암농악을 발굴하여 용인의 특화된 문화상품으로 육성하자는 여론이 비등하고 있는 가운데 백암농악의 기능 보유자인 차용성(78)씨와 아들 차진복(48)씨 등이 나서서 그 맥을 잊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흰바위농악단을 조직해 금년 첫 발표회를 갖기도 했다.

백암에는 조선시대부터 농악이 성행해서 마을마다 다양한 양식의 풍물놀이가 연희되었다. 그러나 일제 강점기에 들어서면서 총독부의 문화말살 정책으로 풍물굿을 낭비적인 것, 미신적인 것으로 매도하여 그것이 지니고 있던 대동놀이의 성격을 상실함으로써 모든 활동이 중단되는 아픔을 겪기도 했지만 8.15 광복이 되면서 다시 농악이 시작되었고 50년대 말부터 60년대 초까지 크게 번성했다고 한다. 70년대 들어서 새마을 운동이 시작되고 근대화 과정 속에 서구문화가 물밀듯 들어오면서 다시금 쇠락의 길을 걷기 시작하더니, 기능을 보유하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하나 둘 세상을 떠나 옛 전성기의 모습을 다시는 재현할 수 없게 되었다. 다행히 상쇠로 활동하시던 차용성 선생이 가락과 판제를 기억하고 있어 그 명맥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 그나마 다행이 아닐 수 없다.

차용성 선생의 백암농악은 지역의 전통적인 양식을 기본 바탕으로 하고 있으나 남사당패로 부터도 적지 않은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다. 사실 남사당이 전국 어디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은 곳이 없다. 그래서 경기도 지역의 웃다리 농악은 가락이나 판제가 상당 부분 비슷하다. 풍물패를 이끌다 보면 다른 가락이나 판굿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을 그대로 수용하기보다는 자신들의 패에 맞게 변형하기도 하고 응용하여 새로운 양식을 만들기도 한다. 특히 백암에는 옛 부터 인근에 이름을 떨친 명인들이 많았다. 특히 유명수라는 분은 걸출한 기능을 가지고 있었는데 차용성씨도 그 분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고 한다. 때문에 백암농악의 판제는 다른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형태를 가지고 있다.

바우덕이 축제 때 연희되는 안성이나 평택농악을 보면 가락에 있어서는 백암농악과 큰 차이가 없는데 판제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우선 앉은 법고가 다르고, 안성과 평택에는 피조리가 있는데 백암에는 법고가 그 역할을 대신 한다. 또 백암농악에는 잡색 중에 탈이 들어가는데 안성이나 평택에는 없다. 판굿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도 여러가지 면에서 차이가 있다.

백암농악은 상쇠, 부쇠, 징, 북, 장고, 법고, 잡색(탈, 노인, 양반, 여자), 영기, 농기 등으로 구성된다. 가락은 12체인데 준비가락, 세마디 가락, 자진가락, 길가락, 두마디 가락, 동의삼작, 단체움직임 가락, 찍찌기 가락, 춤가락, 12발 상모, 광고가락, 고사가락이다.

그리고 판굿의 순서는 ①준비가락(입장-삼채, 휘모리) ②인사굿(2열 및 원형) ③멍석말이(휘모리) ④길가락(7체-진을 푼다) ⑤두마디 가락(6체-원형을 만든다) ⑥소고놀이(치배-일렬, 법고-원형) ⑦상쇠놀이 ⑧치배놀이 ⑨둘법고(앞으로 세 발작 나갔다 들어옴) 앉은 법고(법고들의 유희-상법고가 지휘) 좌우치기(우-좌-앞-뒤-원형) 기둥법고 놀이(치배와 법고가 교대로 앉고 선다-휘몰이) 가위잽이(삼채 치면서 가위모양-풀면서 원형) 당산벌림(사각형 교대 가위치기) 사통백이(4개의 작은 원형) 멍석말이(풀면서 삼채) 인사굿(원형) 행진(광고가락)으로 퇴장한다. 특이한 것은 잡색에 탈이 들어간다는 것이다.

백암농악이 연희되는 시기는 필모(모내기를 마침) 때 하는 대동놀이가 있고, 김매기를 하면서 소리꾼이 논두렁에서 북치며 선소리를 하면 일꾼들이 후렴을 매기는 김매기 소리가 있다. 농사일을 마치고 돌아오던 두레 농악대가 다른 농악대를 만나면 점고를 치며 싸움을 걸어 두레싸움을 하게 되는데 상대방의 장복을 빼앗은 팀이 이기게 된다. 싸움이 끝나면 두 마을 사람들이 어우러



<사진6-71> 차용성 선생

저 술과 음식을 먹으며 풍년을 기원하였는데 이때 두 마을 두레째가 함께 치는 굿을 합굿친다고 했다. 또 김매기를 마치면 호미씻음굿이라고 해서 온 마을 사람들이 모여 대동놀이를 했다. 그리고 한가위 추석과 설에도 대동놀이를 했는데 정월 보름에는 집집마다 다니면서 우환과 액을 막는 지신밟기를 했다. 그 외에 군이나 면에서 축제가 있으면 모든 풍물패가 나가서 한데 어울려 놀기도 했다.

차용성씨는 1928년 아버지 차정범(車正範)의 4대 독자로, 백암면 용천리 45번지 율리에서 태어났다. 한 번도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 본적 없이 이곳에서 한평생을 살았으며 가족으로는 1년 전에 세상을 떠난 부인 김공순 여사와 의 사이에 4남 4녀를 두고 있다. 백암농악에서 태평소를 불고 있는 차진복씨가 세 번째 아들이다.

차용성 선생의 계보를 살펴보면, 안성 남사당패에 이원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한테 김기복, 최옹찬, 남원영씨가 배웠고, 김기복씨는 안성농악을, 최옹찬씨는 평택농악을 이끌어 왔다. 그리고 남원영씨는 이필재씨를 가르쳤고 이필재씨는 일죽면 오방에 사는 김익수씨에게 전수했는데 차용성씨가 바로 김익수씨에게 그 기능을 배운 것이다. 그렇다고 처음부터 상쇠를 한 것은 아니고 18살 때부터 소고를 배우고 상모를 돌리며 두레째에서 활동을 시작하여 40대가 되어서야 비로소 상쇠를 잡기 시작하였다.

또한 차용선 선생의 비나리는 용인에 전수되어 오고 있는 유일한 것으로, 철장리에 사는 임철기 선생으로부터 전수받았다고 한다. 비나리는 워낙 배우기가 어려워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이 많고 또 소리를 잘 하지 못하는 사람은 배워도 그 맛을 내지 못한다. 당시 같이 배운 사람이 문병묵씨인데 지금은 타계하고 차 선생만 그 비나리를 재현하고 있다.

지금까지 차용성 선생에게 풍물을 배운 제자들은 상당히 많지만 백암농악의 맥을 이어갈만한 사람을 오랫동안 찾지 못하고 있다가 10여년 동안 선생에게 쇠를 배우고 있는 배소희씨가 앞으로 백암농악을 이끌어 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농촌사회의 오랜 전통인 동시에 생활의 윤활유로서 늘 함께 해왔던 풍물굿이 오늘날에 와서는 농촌 지역의 피폐와 이농현상으로 인해 현장에서조차 찾기 어렵기 힘든 실정이다. 그리고 비록 문화센터나 주민자치위원회 등에서 교육을 하고 있지만 박제화된 문화형태로 전락해 버린지 오래이며, 대학가에서 행

해지는 풍물굿 역시 어떤 짜집기 식의 잔가락을 쳐서 즐기는 사물놀이 형태나 극히 부분적인 악보의 전승 형태에만 그치고 있다.

풍물은 우리사회의 구조적 모순이 심화됨에 따라 계속 쇠퇴의 길을 걸어 왔으며, 그 정신이 단절된 듯 보이기도 한다. 실제로 옛 선인들의 생활문화로서 면면히 이어온 풍물굿이 근래 들어 그 본디 모습을 계속해서 잃어가고 단지 시끄러운 타악의 음률로만 전달되거나 인식되고 있는 게 현실이기도 하다. 그것은 풍물굿이 우리의 삶의 체계 속에서 절대 분리해낼 수 없는 한 부분으로 정착되어야 함을 의미하며, 또 그래야만 풍물굿의 발전과 더불어 삶의 발전도 함께 이끌어낼 수 있는 것이다. 이는 풍물굿이 농촌지역이나 노인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젊은이들도 어느 현장에서건 함께 할 수 있을 때 넓은 의미의 풍물굿판은 열릴 수 있음을 의미한다.

백암농악이 우리 용인의 전통문화의 맥을 잇는 중요한 문화상징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김장환〉